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브라질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브라질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CONTENTS

Brazil





요약	6
----	---

Part I 국가 일반 현황

1. 국가 개황	20
2. 경제 및 무역	24
3. 농업	29
4. 물류	31

Part II 농식품 시장 동향

1. 생산 동향	38
2. 유통 동향	42
3. 소비 동향	53
4. 수출입 동향	57
5. 식품 정책 동향	64
6. 한국 식품 동향	67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1. 수입통관	76
2. 동식물 검역	83
3. 라벨링	89
4. 진입장벽 및 통관 거부사례	94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1. 식품 관련 인증제도	98
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103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1. 상표권 및 특허권 개요	110
2.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방법	113
3. 분쟁 사례	117

부록	120
----	-----

| 요약 |



□ 국가 일반현황

- (국가개황) 국토면적은 약 851만km²로 세계에서 5위이며 인구 역시 약 2억 명으로 절대적으로 소비시장이 큰 편임
 - 26개의 주와 1개의 연방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도시로는 상파울루, 리우데나제이루, 살바도르, 브라질리아, 프르탈레자 등이 있음
 - 민족은 백인(47.7%), 물라토(흑백혼혈)(43.1%), 흑인(7.6%), 아시아인(1.2%), 원주민(0.4%)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언어는 포르투갈어이며 2016년 GDP는 1조 7,986달러, 1인당 GDP는 8,726달러임
- (경제 및 무역)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금리 인상,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2년 5.4%였던 물가상승률은 2015년, 2016년 각각 9.0%, 8.7%로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014년 6.8%에서 2016년, 2017년 각각 11.3%, 12.1%까지 상승하였음
 - 무역수지 역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196억 85만 달러로 2012년 194억 21만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농업) 넓은 국토, 즉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열대, 아열대, 온대로 기후가 나뉘어지며 이에 따라 온대작물부터 열대작물까지 동시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농업구조가 이분화되어 있어 기계화된 자본집약적 대규모 농업과 함께 자원이 빈약한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원화된 농업정책을 통해 애그리비즈니스와 가족농을 지원하고 있음
- (물류)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을 하는 경우 주로 이용되는 경로는 해상과 항공이며 해상의 경우는 부산에서 파라나과항 또는 마나우스항, 항공은 인천공항에서 과를루스 공항이 주로 이용됨
 - 해상운임은 2017년 5월 현재 20피트 컨테이너 당 약 3,500달러(부대비용 별도)이나 15일 단위로 큰 폭으로 인상/인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적 시점에 정확한 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운임은 2017년 5월 현재 1kg의 경우 5,000원 정도이나 해상과 마찬가지로 항공편 또는 시기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시장 동향

- **(생산동향)** 신선농산물 중 주로 과일 및 축산물의 연도별 생산량이 높은 편임
 - 재배 면적이 넓고 기후가 다양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오렌지 농축과즙 생산국이며, 특히 과일생산에 이상적인 기후조건에 따라 바나나, 토마토, 사과, 수박, 망고, 파인애플 등 약 300종 이상의 과일을 생산하고 있음
 - 축산물 생산량 중에는 닭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한편 가공산업 중 식품가공산업은 규모 및 수익성이 가장 크며, 가공식품 중에서도 소시지제품 생산량이 가장 많음
 - * 2013년 : 소시지제품 생산량 341만 7,751톤

- **(유통동향)** 유통시장은 비(非)점포 소매업의 확대,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의 확대, 고급식품점 증가, 저가제품 위주 구매 성향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비(非)점포 소매업의 확대) 인터넷 소매업이 매출액 증가로 주요 비점포 기반 소매업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났음
 -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의 확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만을 구매하게 되었고, 주거지역에 현대적 식료품 소매업체가 진출하지 않아 현대적 식료품 소매업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확대되었음
 - (고급식품점 증가) 상류층 소비자를 위한 고급식품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계층 간 소득분배 양극화를 보여줌
 - (저가제품 위주 구매 성향)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는 아직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까르푸, GPA(Grupo Pão de Açúcar, 그루포 빵데이아수카르), 월마트는 2012년 기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신선농산물의 경우 칠레산 배와 브라질산 배가 유통되고 있는데 칠레산 배의 경우 브라질산 배 가격의 절반으로 칠레산 배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현지·수입 신선농산물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히로따 제품명: 배 원산지: 브라질 가 격: 13.78BRL		판매처: 롯데마트 제품명: 배 원산지: 칠레 가 격: 7BRL

* 환율 정보(2016) 1헤알(BRL): 334.82원

- 브라질 내 대형 유통업체, 하이퍼마켓, 편의점, 일본식품 수입·유통업체 등을 기준으로 주스류, 제과류, 제과류, 면류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원산지도 브라질 자국 브랜드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의 수입제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음

» 현지·수입 가공식품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자파리 제품명: PAO DE MEL 원산지: 브라질 중 량: 100g 가 격: 7.78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esfit 원산지: 스위스 중 량: 160g 가 격: 2.95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TURMA DA MONICA 원산지: 브라질 중 량: 80g 가 격: 1.45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ISSIN CUP NOODLES 원산지: 일본 중 량: 69g 가 격: 3.49BRL

* 환율 정보(2016) 1헤일(BRL): 334.82원

- (소비동향) 최근 소비 트렌드는 ‘건강·웰빙 지향적’, ‘높은 쇠고기 수요’, ‘주식인 제빵류에 대한 높은 소비’, ‘음료 및 초콜릿류의 지속적인 인기’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브라질 국민들이 주로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함에 따라 국민들의 비만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웰빙 지향 제품을 권장하고 있음
 - * 최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채소, 유기농 제품, 무설탕 제품, 유당제로 제품, 통곡물 제품, 글루텐 프리 제품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에 대한 소비수요는 낮으나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시지, 햄, 육포 등 육가공제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음
 - 주식으로 먹는 빵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으며, 그 외 음료나 초콜릿에 대한 소비도 많은 편임
 - 또한 스시(데마끼)의 영향으로 최근 김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수출입 동향) 브라질은 주로 대두, 낙화생, 유채, 해바라기씨 등의 채유용 종자·인삼, 육과 식용 설육, 당류·설탕과자 등을 수출하며, 주요 농식품 수입 품목은 밀, 메슬린이며 그 외 맥아, 쌀, 마늘, 와인, 밀가루, 감자 등도 상위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 2016년 수출액 기준, 한국의 對브라질 농식품 상위 10개 수출 품목은 과실주스 음료, 베이커리 제품, 라면, 김, 인삼차등임
- 특히 과실주스 음료의 경우 2016년 수출액은 약 100만 달러로 농식품 수출액인 550만 달러의 약 20%를 차지함
-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 초콜릿 과자류 수요가 높아 초코파이의 수출량이 많긴 하지만, 브라질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경우 주로 교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출량이 많지는 않음

» 한국 對브라질 농식품 수출 품목

단위: 톤, 천USD, %

NO	HS Code	품목명	2015		2016		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식품 합계			3,025	6,992	2,381	5,520	△21.3	△21.1
1	220290	음료, 과실주스 음료	1,232	1,297	1,041	1,036	△15.5	△20.1
2	190590	베이커리 제품	156	637	156	621	-	△2.5
3	190230	라면, 인스탄트면류	129	703	158	614	22.5	△12.7
4	190190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기타)	358	632	305	504	△14.8	△20.3
5	210690	김, 당시럽, 인삼차, 조제품 기타	57	464	38	418	△33.3	△9.9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식품정책 동향) 식품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만성 비전염성 질병퇴치를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 ‘제2차 식량 및 영양 보장계획’, ‘알레르기 예방 관련 식품 성분표기 강화’,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 수입 허용’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만성 비전염성 질병 퇴치를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 2004년부터 어린이들에게 고지방, 설탕, 소금 관련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집행부, 입법부 및 사법부 간 새로운 사회적 규범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음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 정책, 만성 비전염성 질병 퇴치를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 (Strategic Action Plan to Combat Chronic Non-Communicable Diseases, 2011~2022)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2014년 국민 대상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 가이드를 개발하기도 하였음
 - * 식품의 선택, 준비, 소비 관련 정보, 분석, 가이드를 제공하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을 촉진하는 식품 및 영양 교육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로서 활용

- 요약
- Part I 국가 일반 현황
-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 부록

- (제2차 식량 및 영양 보장계획)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브라질 국민의 적절한 식량 권리를 존중·보호·증진·보장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식량 및 영양 보장에 관한 주요 과제를 파악, 99개 계획을 통해 향후 4년간 121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 브라질 국민의 52%: 과체중, 18%: 비만, 63%: 정기적으로 과일·채소를 섭취하지 않고 있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영양결핍
 - (알레르기 예방 관련 식품 성분표기 강화) 브라질의 6세 이하 유아 중 6~8%가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 따라 2016년 7월 3일부터 이에 대한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 17가지 성분표시 의무화 식품: 밀류(호밀·보리·귀리 및 관련 제품),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아몬드, 도토리, 캐슈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리언 너트, 페칸, 피스타치오, 잣, 밤 등
 -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 수입 허용) 2016년 10월, 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Brazilian National Technical Commission for Biosafety, CTNBio)가 동물사료 생산을 위해 미국의 몬산토 사(Monsanto Co)와 신젠타사(Syngenta AG)로부터 3개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 수입을 승인하였음
 - 한편 이러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은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을 촉진시키고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한국식품 동향) 브라질 식품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식품은 과일음료(포도·딸기 맛)와 어린이 음료이며, 일본계 식품소매점에서는 그 외 초코파이, 라면 등이 판매되고 있음
- 그 중 단맛을 선호하는 브라질의 식습관으로 인해 초콜릿에 대한 소비가 높으며 초코파이도 인기가 많음
 - 그러나 브라질 식품소매점에 한국식품의 종류가 적은 이유는 한국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장거리 수송에 따라 식품 유통기한이 제한되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은 브라질 내 경쟁상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점도 브라질 시장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
 - * 초코파이(한국산): 12.99BRL/234g, PAO DE MEL(브라질산): 7.78BRL/200g

» 한국식품과 경쟁상품 비교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과일음료 중 량: 235ml 원산지: Korea 가 격: 4.55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osso Coco 중 량: 200ml 원산지: Brazil 가 격: 3.89BRL
	판매처: 자파리 제품명: ○○○음료 중 량: 205ml 원산지: Korea 가 격: 5.50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Ducoco 중 량: 1L 원산지: Brazil 가 격: 8.15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라면 중 량: 100g 원산지: Korea 가 격: 5.50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Nissin Lamene 중 량: 80g 원산지: Japan 가 격: 1.50BRL
	판매처: 히로파 제품명: ○○○초코파이 중 량: 234g 원산지: Korea 가 격: 12.99BRL		판매처: 자파리 제품명: PAO DE MEL 중 량: 200g 원산지: Brazil 가 격: 7.78BRL

* 환율 정보(2016) 1헤알(BRL): 334.82원

○ (SWOT) SWOT 분석을 통한 최적전략

- (WT전략) 진입장벽이 높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므로 보다 현지화된 맛 개발이 필요하며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원가 절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ST전략) 쌀은 수송시 냉장온도 관리가 어려워 수출이 어려운데 쌀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수출 품목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검역제도 등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경쟁력 높은 식품을 활용하여 장기적 현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SO전략) 주변국인 미국의 한류 영향으로 브라질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기에 한국산 제품의 안전성 및 차별화된 맛·향을 최대 활용하고, 건강식 및 웰빙 지향 식문화에 적합한 쌀 가공식품 수출 전략 제시해야 함
- (WO전략) 효과적인 한국식품 홍보 전략을 통해 중남미 최대시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한국식품의 건강 자연식 이미지를 개발·강화함으로써 웰빙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야 함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판매확대 방안) 브라질 소비자 대상 단계별 마케팅 전략은 초기에는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중기에는 유통대행업체를 활용한 중소형 마트 입점, 장기에는 현지화 전략 구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초기단계)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주기적인 광고, 시식행사 등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중기단계) 직접 지점 또는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어려우므로 유통 대행업체를 통한 중소형 마트 입점 전략이 필요함
 - (장기단계) 물리적인 거리나 까다로운 통관 등으로 인하여 수출만으로는 시장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생산 등 현지화 필요 있음

» 판매확대를 위한 제언



□ 수입통관 제도 및 식품 위생 제도

- (수입통관) 수입 통관 절차는 수출 전 절차, 선적/운송/환적, 수입 식품 신고, 통관 절차, 물품 반출,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출 전 절차) SISCOMEX에 업체등록을 하고 NCM코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 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신고 전 준비 단계를 거침
 - (선적/운송/환적) 물류대행사(MVOCC)를 선정하고 B/L(수입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환적 관련 서류를 마련함
 - (수입 식품 신고) 이후 수입신고서 등록, 선적 절차, 제출서류 완비를 통한 수입신고를 함
 - (통관절차)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함
 - (물품반출) 화물을 운송하면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가 끝남
 - 통관이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므로 각 단계별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상이한 통관조건들을 잘 파악하여 브라질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함

- * 관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세(II), 공업제품세(II), 주 유통세(ICMS) 등 3가지이지만, 2013년 6월 기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 : 창고세, 터미널 사용세, 상해운세, 상해운송비의 25%, 세관사용인조합 기여금, SISCOMEX 사용료, 화물운송비, 통관수수료
- (식물 검역) 식물 위생검역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브라질 내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고자 함
 - 수입승인 식물제품(PVIA) 목록에 포함된 식물 성분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PVI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준수가 필요함
 - * 식물 종류, 식물 부분, 사용 목적, 원산지 등 구체적인 식물위생 검역 요건을 브라질 공식 신문(DOU)에 공표. 이러한 식물위생 검역 요건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를 수행한 후에 확인할 수 있기에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는 식물위생 검역 요건 결정을 위한 기초. 그러나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장애물.
- (라벨링) ANVISA가 규정하는 식품에 첨부하는 라벨에 관한 일반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표시 라벨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원산지, 수입업체 명칭 및 주소, 로트 식별, 유통기한, 취급사항이 표시되어야 함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7가지 식품에 대해 식품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2008년 3월 12일자 Normative Resolution No.5는 LMO 및 파생식품에 유전자 변형 원료가 1%라도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해당 원료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규정함
 - 정부가 발행한 GMO 인증표시를 부착(삼각형으로 상징됨)하고, 성분표시 의무화, 생산품·원자재를 표시해야 함(곡물 종류, 혹은 혼합의 경우 분리 표시)
 - GMO 식품의 경우 포장지에 T문자를 명기해야 하며 원재료의 유전자 변형 물질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함
 - 2003년 ANVISA 법령에는 라벨에 필요한 식품의 용량표시에 관한 기술적 규칙과 포장된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데 표시 의무사항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량,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식물성유, 나트륨에 대한 정보임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라벨링 예시

- ㉠ 제품명
- ㉡ 원재료 일람
- ㉢ 내용량(중량)
- ㉣ 원산지
-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명칭 및 주소
- ㉥ 로트(Lot) 식별: 회사코드, 제조일 또는 사용기한
 - 제조일자(반드시 겉 포장용기에 표기)
 - 유통기한(생산자로부터 결정되어진 품질수명)
- ㉦ 유통(소비)기한
- ㉧ 특별히 필요한 취급사항
- ㉨ 조리법이나 사용법의 설명(필요할 경우)
- ㉩ 특별 보관방법(필요할 경우)



○ (진입장벽) 브라질 내에는 높은 세제 부담 및 물류비용, 공무원의 부패, 강성 노조 및 잦은 파업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관세장벽, 즉 ‘브라질 코스트’가 있어 브라질에 진출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에 직·간접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함

- 1990년대 초 수입개방 이후 대외무역 절차의 현대화, 즉 서류 절차가 전산화되었지만 아직도 통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남아 있어 브라질 진출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에서 수출입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수입면허(RADAR)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취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됨
- 수입신고·세금 납부 후 ‘채널 배정’이라는 브라질만의 특수한 통관 절차가 진행됨
- 경제성장 대비 낙후한 물류 인프라, 예컨대 공항·항만 시스템의 비효율성, 철도 및 도로시설 낙후 등으로 인한 물류 인프라 부족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여 다양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 수입세, 상품유통세, 사회보장세, 금융거래세, 소득세 등 세금 종류만 61가지이며 연방·주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세제 등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세율이 높음

○ (통관 거부사례) 통관 거부사례 정보는 브라질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브라질 내 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공개되지 않은 몇 가지 통관 거부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한국식품의 통관 거부사례는 대체로 브라질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목적에 기인하는데,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인삼차, 알로에 주스, 바나나 우유, 박스 등이 있음
- (인삼차) 브라질 내에서도 인삼 및 홍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인삼차가 건강기능성이라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통관을 위한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임

- (알로에 주스) 2014년 기준 세계 150개 국가에 수출될 정도로 시장성이 뛰어났으나 브라질에서는 포장지의 건강 기능 관련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 (바나나 우유) 유지방 함량 60%로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통관을 위해 수출기업인증, MAPA 제품 등록, 수입면허 등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한 품목임
 - (박카스) 주요 성분인 타우린을 현지 조건에 맞추어 감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NVISA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정 하에 수입이 금지되었음
- (식품관련 인증제도) ANVISA, 유기농 식품 인증 등이 있는데 유기농 식품 인증의 경우 MAPA에서 관리함
- ANVISA는 의료, 미용, 식품, 농약,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제품의 수출입 위생과 검역절차 주무 기관으로 의료장비, 제약, 식품, 화장품 등 위생 관련 전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기관임
 - ANVISA는 '인증'보다는 '등록'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씰(seal)이나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등록 번호 또는 관련 법령을 제품에 기입함
 - ANVISA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 시장에 판매 유통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브라질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ANVISA 인증 취득이 필요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파악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 기본적으로 BRH(Brazil Registration Holder)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ANVISA 허가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현지법인이나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함
 - ANVISA 인증 시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제출서류는 업체규모 증빙서류, 제조사 등록 신청서, ANVISA 등록신청비 납부 영수증 원본, 라벨 샘플, 섭취방법 샘플, ANVISA 등록이 허가하는 영업증명서임
 - 2011년 1월, 유기농 식품 시장에 대한 법이 승인되면서 브라질 자체적으로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로 슈퍼마켓 및 식료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기농 식품에 'Orgânico Brasil'이라는 국가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함유된 유기농 성분이 95%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 표시 대신 '유기농 성분을 지닌 식품' 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 성분이 적어도 70% 이상은 함유되어야 함
- (식품첨가물 규정) 법령 50040(1961.1.24.)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11가지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① 염료 - 음식에 색을 더하는 물질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② 향료 - 음식의 맛과 향을 부여하거나 향상시키는 물질
- ③ 보존료 - 미생물에 의해 야기되는 식품의 변화를 예방·지연시키는 물질
- ④ 산화방지제 - 식품의 산화를 지연시키는 물질
- ⑤ 안정제 -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는 물질
- ⑥ 증점제 - 식품의 용액, 유화액 및 현탁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물질
- ⑦ 감미료 - 단맛을 내는 인공물질
- ⑧ 습윤제 - 식품의 수분손실을 방지하는 물질
- ⑨ 산미료 - 산성 맛을 식품에 포함시키거나 강화하는 물질
- ⑩ 식품살충제 - 식품의 흡습성을 감소시키는 물질
- ⑪ Foaming and Anti-Foaming - 식품 음식의 표면 장력을 변형시키는 물질

- 제품의 PIQ(Product Identity and Quality Standard, 제품 정의와 품질 표준) 및 추가 법규정에 따라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를 제한하는 등 제약을 두고 있음

- ANVISA는 식품첨가물 규제정보를 통해 식품분류에 따라 개별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필요성 및 안전성 분석을 실시함

* 식품첨가물과 해당 첨가물이 함유될 제품과의 관계, 식품첨가물의 기능, 적절한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자료, 식품 섭취 시 미칠 잠재적 영향, 타 국가에서의 규제 상황

◦ **(유해물질 규정)** 2015년 품목별 유해물질 최대잔류수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은 2015년 이전에는 설정되지 않았던 MRL 기준이 설정되거나 수치가 조정되었음

- 서양호박의 디페노코나졸(살충제)의 MRL은 과거 0.06mg/kg에서 0.02mg/kg로 강화되었으며, 상추 역시 페나미돈(살균제) MRL이 1mg/kg로 강화됨
- 파파야의 사이퍼메트린(살충제)의 MRL은 0.02mg/kg로, 콩의 보스칼다 MRL도 0.01mg/kg로 신규설정되었으며, 쌀, 바나나, 감자, 양파도 새롭게 설정됨
- 카사바의 피라클로스트로빈의 MRLmg/kg은 과거 0.01mg/kg에서 0.02mg/kg로 완화됨
- 토마토의 경우 과거에 0.5mg/kg로 설정되었던 아세테이트 MRL이 0mg/kg으로 강화됨

□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 **(상표권 개요)**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연간 브라질 신생기업 100만 개 중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은 15%에 불과하지만, 출원건수는 2013년 기준 16만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상표권 출원방법)** 상표권 출원을 위한 선결조건은 특허청 사이트(www.inpi.gov.br)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확인 절차는 간편하나 홈페이지가 포르투갈어로 쓰여 있으면서 영문버전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상표명을 조회하는 프로세스는 ① 브라질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 좌측 메인 중 'Marca' - 'Buscar'를 선택, ② 화면 중앙부의 'Ferramenta de busca online'을 선택, ③ 화면 상단의 메뉴 중 'Marca'를 선택한 후 빈칸에 상호명을 조회하는 것임
 - 상표권 등록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출원서 양식 3부(이름, 주소, 업무, 상표 및 지정상품, 서비스업 기재)
 - ② 위임장(대표자 서명 필)
 - *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필요
 - ③ 상표견본(도형 또는 결합상표의 경우 15부, 문자상표는 견본 불요)
 - * 단, 문자상표가 대문자로 된 경우에는 결합상표로 취급
 - ④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출원서 인증사본
 - * 인증사본은 브라질 출원일로부터 4월(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 우선권 주장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요
 - 출원서 제출 후 보정통지 또는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을 경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출원은 포기로 간주함
- **(특허권 개요)** 2015년 기준 브라질에서 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년으로 나타났는데 취득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사위원 부족인데 현재 INPI 특허 전문 심사원 1명 당 약 1,000여 건을 심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INPI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음
- **(특허권 출원방법)** PCT 특허 출원 절차를 따라 지정국 출원을 하는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한 다음 PCT 국제 특허 절차를 따라 지정국내 특허 절차를 밟는 것이 일련의 절차임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① 수리관청인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내특허 출원 후 우선권 주장 시 12개월 이내에 한국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함
 - ② 출원서 작성시: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 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은 필요 없음
 - ③ 국제조사(필수): 국제조사기관 ISA은 출원 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는 국제조사를 실행하며, 발간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출원인 및 WIPO에 배부됨
 - ④ 국제공개: 국제조사 보고서와 함께 국제 출원서류가 팜플렛 형태로 국제사무국 공보에 공개됨
 - ⑤ 국제 예비심사(선택): 국제 예비심사 기관 IPEA는 출원된 발명의 실제 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실시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WIPO에 송부함. 특허 유무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통해 지정국내에 진입여부를 결정하여 특허 출원의 신중을 기할 수 있음
 - ⑥ 번역문 제출: 반드시 포르투갈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 ⑦ 지정국 등록: 이후 브라질을 지정국으로 등록하여 진행함
- (분쟁사례) 분쟁사례로는 상표권 불법복제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데 브라질에 입점한 미국 햄버거 브랜드 'Johnny Rockets'의 상표 불법복제 사례임
 - 2003년 브라질에서는 이미 'Johnny Rockets' 브랜드의 타이포그래피, 로고, 색상을 복제한 'Rockets'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였음
 - 이로 인해 'Johnny Rockets' 미국 본사에서 브라질 'Rocket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Rockets'은 패소 및 폐업했지만 이로 인해 'Johnny Rockets' 2004~2005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였음

Part I

| 국가 일반 현황 |

01. 국가개황

02. 경제 및 무역

03. 농업

04.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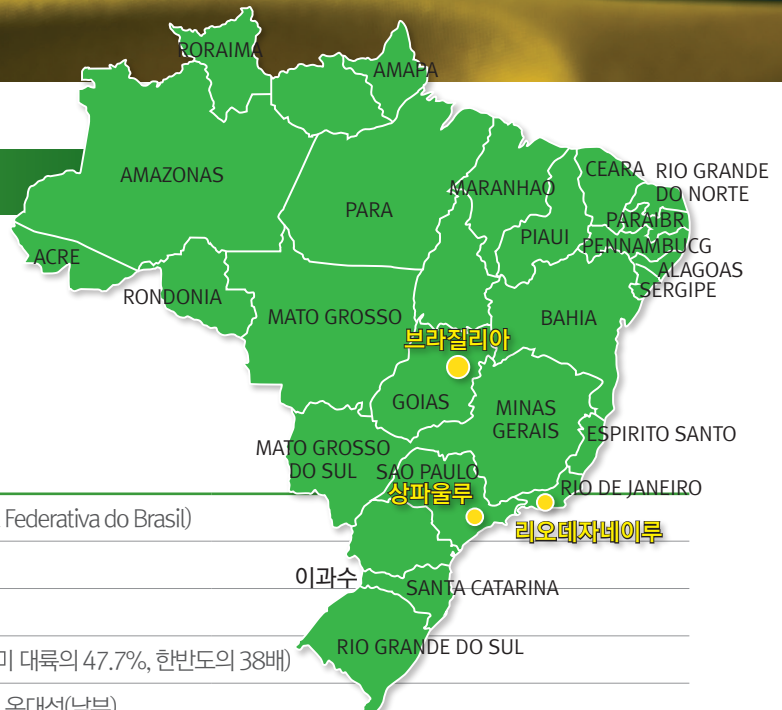


Brazil

Part I

국가 일반 현황

01 | 국가개황



국명	브라질연방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수도	브라질리아
인구	2억 582만 3,665명
면적	851만 1,965km ² (세계 5위, 남미 대륙의 47.7%, 한반도의 38배)
기후	열대성(북부), 아열대성(중부), 온대성(남부)
권역 구성	26개의 주, 1개의 연방구
주요 도시	상파울루(1,189만 명), 리우데자네이루(645만 명), 살바도르(290만 명), 브라질리아(280만 명), 포르탈레자(257만 명)
민족 구성	백인(47.7%), 몰라토(흑백 혼혈)(43.1%), 흑인(7.6%), 아시아인(1.2%), 원주민(0.4%)
종교	가톨릭교(64.6%), 개신교(22.2%), 무교(8.0%), 기타(5.2%)
언어	포르투갈어
GDP	1조 7,986억 달러 / 1인당 8,726달러
화폐 단위	헤알(Real)
환율	1BRL=334.82KRW
회계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가능)
국가 원수	미셰우 테메르(2016년 8월 31일~2018년 12월 31일), 전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잔여임기 수행 중

* 주: 2016년 기준

가. 국토

- 브라질은 크게 5개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26개의 주와 1개의 연방구로 나눌 수 있다.
 - 5개 지방은 노르치, 노르데스치, 센트루-오에스치, 수데스치, 술이다.

» 지방 구분



지방	주
① 노르치 지방 Região Norte (북부 지방)	호라이마(Roraima), 아마파(Amapá), 아마조나스(Amazonas), 파라(Pará), 토크칭스(Tocantins), 아크리(Acre), 혼도니아(Rondônia) - 7개 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는 마나우스
② 노르데스치 지방 Região Nordeste (북동부 지방)	마라냥(Maranhão), 피아우이(Piauí), 세아라(Ceará), 히우그란지두노르치(Rio Grande do Norte), 파라이버(Paraíba), 페르남부쿠(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세르지피(Sergipe), 바이아(Bahia) - 9개 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는 살바도르
③ 센트루- 오에스치 지방 Região Centro-Oeste (중서부 지방)	마투그로수(Mato Grosso), 고이아스(Goiás), 연방구(Distrito Federal, 브라질리아), 마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 - 3개의 주와 1개의 연방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는 수도인 브라질리아
④ 수데스치 지방 Região Sudeste (남동부 지방)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이스피리투산투(Espírito Sant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ão Paulo) - 4개의 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⑤ 술 지방 Região Sul (남부 지방)	파라나(Paraná),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 3개의 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는 쿠리치바

출처 : 외교부, CIA The World Factbook 정보 종합.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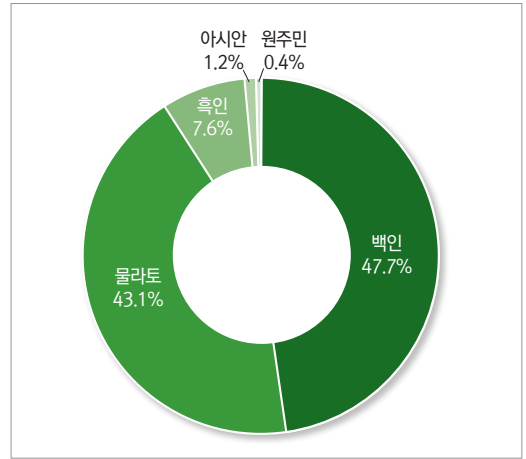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나. 인구

- 인구는 2016년 기준 2억 5,823만 665명으로 세계 6위이다.
- 브라질의 인구는 지난 2010년의 1억 9,073만 명에 비해 약 7.9%인 1,509만 명이 증가하였다.
- 인종별 구성은 백인이 47.7%인 약 9,817만 명, 물라토(흑백혼혈)는 43.1%인 약 8,871만 명, 흑인은 7.6%인 1,564만 명이며, 아시안계 인구는 1.2%인 246만 명이다.
- 아마존강 유역 등에 거주하는 원주민 인구는 0.4%인 약 82만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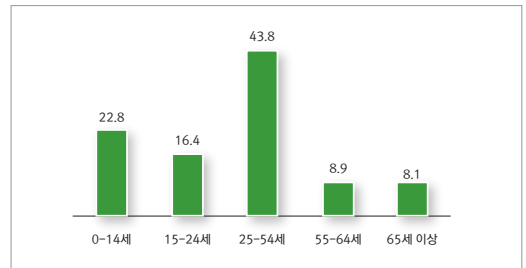
» 인구 구성



출처: CIA World Fact Book 2016

- 평균연령은 31.6세로 젊은 국가이다. 주 구매층인 25~54세 인구가 43.8%에 이르며, 다음 세대의 경제활동인구인 15~24세의 청소년 및 청년층 인구는 전체의 16.4%에 달해 향후 지속적으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처: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브라질 통계청, www.ibge.gov.br), CIA World Fact Book 2016 종합.

» 연령대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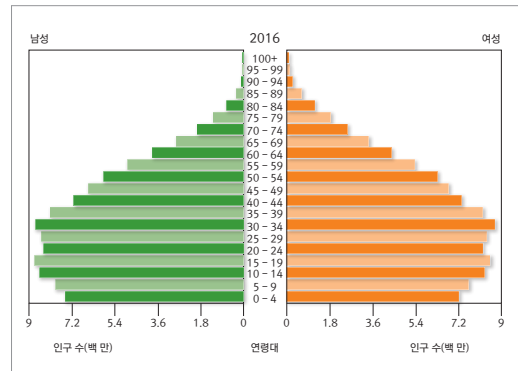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	여	계
총 인구	101,498,768	104,324,897	205,823,665
0~14세	23,905,185	22,994,222	46,899,407
15~24세	17,146,060	16,661,163	33,807,223
25~54세	44,750,568	45,489,430	90,239,998
55~64세	8,637,011	9,656,370	18,293,381
65세 이상	7,059,944	9,523,712	16,583,656

출처: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브라질 지리통계원, www.ibge.gov.br), CIA World Fact Book 2016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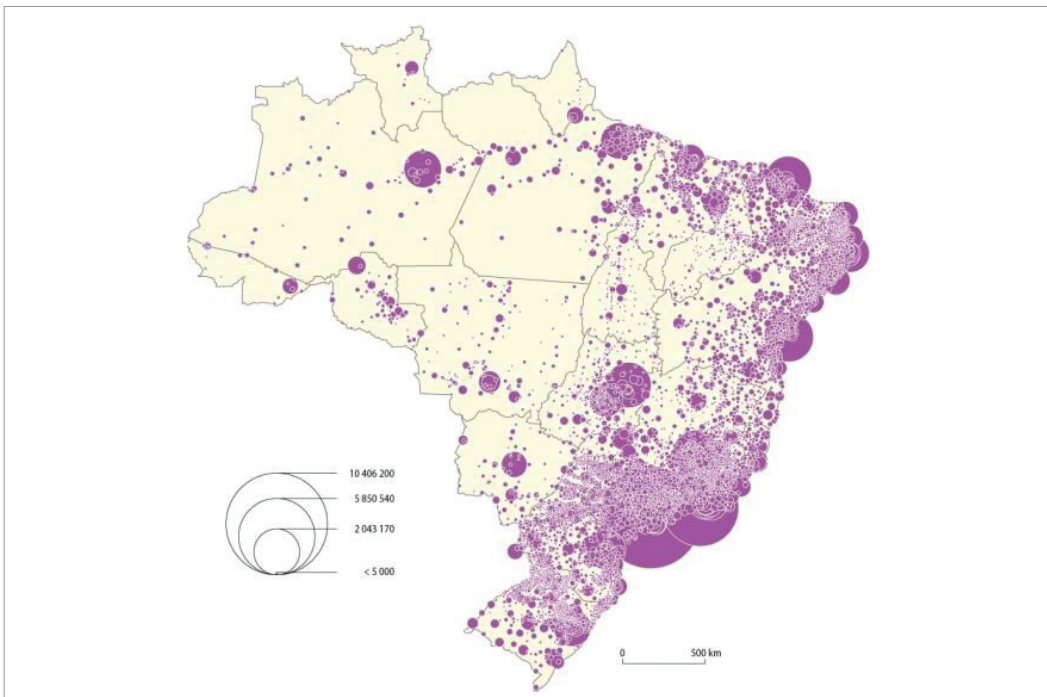
- 성비는 남성 49%(1억 149만 명), 여성 51%(1억 432만 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다.
- 하지만 0~24세 영유아·청소년·청년층에서는 남성이 4,105만 명, 여성이 3,965만 명으로, 남성이 139만 명이 많으므로 향후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 연령대별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생 시 남녀 성비는 105:100인 반면 65세 이상은 74:100이다.

» 인구 피라미드



출처 :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브라질 지리통계원, www.ibge.gov.br), CIA World Fact Book 2016 종합

» 지방별 인구 분포



출처 :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브라질 지리통계원, www.ibge.gov.br).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가. 경제 전반

□ 넓은 국토와 풍부한 인구를 가진 라틴아메리카의 중심 시장

- 라틴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47%를 차지하는 넓은 국토와 2억 명이 넘는 풍부한 인구를 가진 남미지역 중심 시장이다.
- 전 국토의 60% 이상이 정글과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임산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철광석, 보크사이트, 망간, 알루미늄 등 다양한 지하자원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 BRICS¹⁾ 국가의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신흥 경제시장으로 각광 받았으나,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를 통해 부활을 꿈꾸는 브라질

- 2014년 개최된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개최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브라질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통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누리 경기불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을 위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과도하게 투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사회 지출이 감소하였고, 이로써 사회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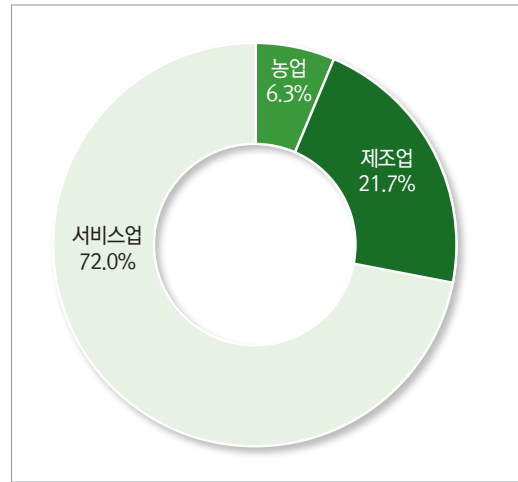
□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브라질

- 다양한 부존자원과 넓은 농지를 바탕으로 1차산업과 2차산업은 물론, 2억여 명에 이르는 풍부한 인구가 배경인 3차산업 등 전 산업 분야가 발달해 있다.
- 농림수산업, 광산업, 에너지 산업,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IT 산업 등이 주요 산업이다.
 - ① 세계적인 농업생산국가로 다양한 작물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전체 GDP의 6.3%에 불과하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전체 고용의 15.7%를 담당하는 중요 산업 중 하나이다.
 - 주요 농산물은 커피, 대두, 밀, 쌀, 옥수수, 사탕무, 코코아, 오렌지, 소고기 등이다.
 - ② 광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총 69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흑연, 희토류, 니켈, 망간, 알루미늄, 철광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1) BRICS: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5개국으로,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 경제 5개국을 일컫는 말이다.

- ③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5위이고,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이다. 국영회사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및 생산, 정제를 맡고 있으며, 석유 생산 확대를 통하여 주요 산유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 ④ 세계 4대 항공기 제조국으로서 중형 여객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자국 내 내수 수요가 높으며,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 ⑤ 풍부한 인구에 힘입어 남미 자동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28개의 다국적 자동차기업이 진출하여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에 진출한 주요 자동차기업은 GM, 폭스바겐, 피아트, 포드, 르노, 도요타, 혼다, 현대기아차 등이다.

» 산업의 GDP 비율



출처 : CIA World Fact Book 2016 (www.cia.gov)

□ 2017년 사업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플레이션 감소세에 따라 투자 회복 예상

- 2016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7년은 사업 친화적인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소세에 따라 사업환경이 개선되어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단기 전망으로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며, 유통부문의 매출 역시 2018년까지는 원만한 성장을 전망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요 경제지표

- 경제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초반 BRICS 국가로 꼽히며 신흥시장으로 각광받던 브라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뒤 2010년대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제성장률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 금리 인상,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IMF 전망에 따르면 2017년에는 0.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실업률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점차 증가세이다. 2010년대 이후에도 실업률이 안정적이었으나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전년 대비 1.5%p 상승한 8.3%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2016년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무려 11%를 상회하는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경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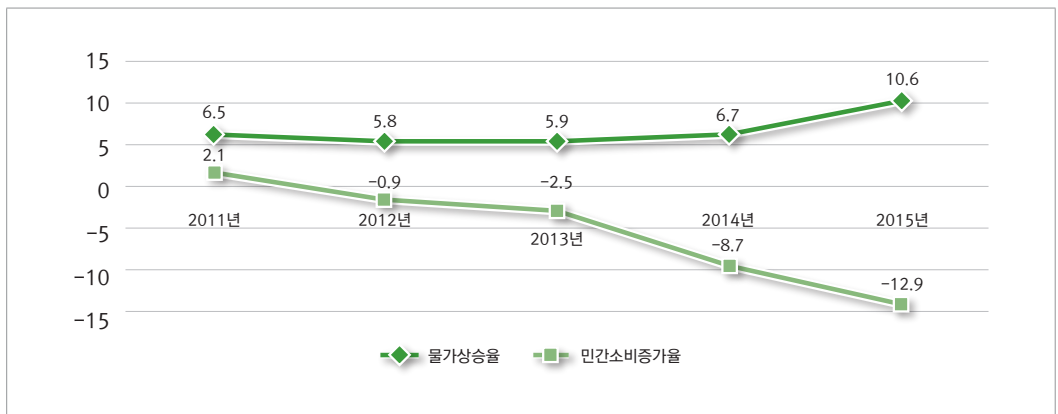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	4.0	1.9	3.0	0.5	△3.8	△3.6	0.2
GDP (백만 USD)	2,614,027	2,464,053	2,471,718	2,456,054	1,801,482	1,798,622	2,140,940
1인당 GDP(USD)	13,242	12,367	12,295	12,112	8,810	8,726	10,700
물가상승률 (%P)	6.6	5.4	6.2	6.3	9.0	8.7	4.4
실업률(%)	7.7	7.4	7.2	6.8	8.3	11.3	12.1
이자율(%)	11.0	7.3	10.0	11.8	14.3	13.8	-

* 주: *는 전망치

출처: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브라질 지리통계원, www.ibge.gov.br), 국제통화기금(IMF, www.imf.org), 세계은행(World Bank, www.worldbank.org) 자료 종합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민간소비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던 민간소비증가율은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으로 경기불황이 시작된 2014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물가상승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출처: IMF, OECD

다. 무역

□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

- 무역수지는 다양하게 발전한 산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년 무역수지는 197억 달러 흑자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 2014년의 경우 3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출이 7% 넘게 감소한 반면 수입 감소폭은 그보다 작고,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다만 2015년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무역수지 흑자는 달러 대비 헤알화의 가치 급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 무역수지

단위: 백만 USD

연도	2012	2013	2014	2015
수출	242,580	242,178	225,188	191,134
수입	224,158	239,620	229,144	171,449
무역수지	19,421	2,558	△3,930	19,685

출처: Ministério da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e Serviços (산업통상서비스부, www.mdic.gov.br)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네덜란드로, 전체 수출액 중 약 43%를 차지한다. 한국은 브라질의 수출 대상국 중 11위(1.6%)이다.

»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USD, %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중국	35,607	18.6
2	미국	24,079	12.6
3	아르헨티나	12,800	6.7
4	네덜란드	10,044	5.2
5	독일	5,178	2.7
6	일본	4,844	2.5
7	칠레	3,978	2.0
8	인도	3,617	1.8
9	멕시코	3,588	1.8
10	이탈리아	3,270	1.7
11	한국	3,122	1.6

출처: Ministério da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e Serviços (산업통상서비스부, www.mdic.gov.br)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독일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한국으로 전체 수입액 중 약 49%를 차지한다. 한국은 브라질의 수입 대상국 중 5위(2015년 기준 3.2%)이다.
- 주요 수입 대상국 중 아르헨티나는 MERCOSUR(메르코수르)²⁾ 가입국으로 브라질의 관세동맹국으로 역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교역 규모가 크다.

»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USD,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1	중국	30,719	17.9
2	미국	26,471	15.4
3	독일	10,379	6.1
4	아르헨티나	10,284	6.0
5	한국	5,420	3.2
6	일본	4,877	2.8
7	이탈리아	4,675	2.7
8	나이지리아	4,633	2.7
9	프랑스	4,457	2.6
10	멕시코	4,377	2.5

출처: Ministério da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e Serviços(산업통상서비스부, www.mdic.gov.br)

□ 한국의 對브라질 주요 수출품

- 2016년 기준, 한국의 對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 및 부속품, 철도 등의 부속품, 기계류 및 부품, 플라스틱, 광학기기 및 부품, 의료용품, 유기화학품, 철강, 고무 등이다. 이들 품목이 전체 對브라질 수출액의 약 91%를 차지한다.
 - 다만 해당 품목은 경우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입관세가 높은 편이며, 철도 등의 부속품의 수입관세는 최대 35%로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 이러한 주요 수출 품목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EU, 독일 등이다.
 - 전기기기 및 부속품, 철도 등의 부속품, 철강 부문에서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이미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유기화학품, 고무, 의료용품 등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 농식품 및 가공식품 주요 품목은 아이스크림, 빙과, 쌀가루, 스프, 식초 등을 포함하는 기타 조제 농식품류이며, 과실류(유자, 감귤, 과실 조제품), 면류, 과자류, 해조류(김, 미역), 식물성 액즙(감초 액기스), 소스(간장, 된장) 등도 많이 수출된다.

2) MERCOSUR(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의 5개국 이 정식 가입국이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의 국가는 준회원국이다. MERCOSUR는 물류 · 인력 · 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여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증진 및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 경제블록을 넘어서 EU(유럽연합)와 같은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 농업

가. 농업 개요

□ 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브라질

- 2016년 기준으로 총토지면적 851만 1,965km² 중 33.3%인 279만 1,619km²가 농지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농지 면적은 중국, 호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

□ 낮은 농업 부가가치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산업이 발달하였으나 농업 부가가치는 비슷한 농업자원을 가진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영세한 영농 구조로 인해 농업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농가의 상위 20%가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반면, 40%의 소농과 준자급자족 농가는 4%에 불과하다.

» 토지 이용, 농업 부가가치, 농업 취업률(2015, 2016)

구분	총면적(백만 ha)	농경지(백만 ha)	농업 부가가치(%) ³⁾	농업 취업률(%) ⁴⁾
브라질	852	282	6.3	15.7
중국	960	515	8.6	33.6
인도	329	179	16.5	49.0
아르헨티나	278	148	11.4	5.0

출처: FAO Stat(2015), CIA World Factbook(2016)

나. 농업 현황

□ 다양한 기후환경

- 국토가 광활하므로 열대, 아열대, 온대 등 기후환경도 다양하다. 따라서 온대작물부터 열대작물까지 동시에 생산이 가능하다.
 - 그중 열대 기후인 중서부 지역과 온대 기후인 남부지역이 주요 농업지대로서 곡물, 유지종자, 기타 수출 작물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농사에 유리한 강수 및 토질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이 발달하고 농업 자재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서부 지역 중 열대 사바나 기후지역인 세하도(Cerrados)는 농업 개발로 인해 현재 전체 대두 생산량의 55%, 면화 생산량의 95%, 쇠고기 생산량의 55%를 담당하고 있다.

3)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부가가치 비중

4) 전체 취업에서 차지하는 농업 취업 비중

- 상파울루주 이남의 남부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토양이 비옥하므로 집약적인 경작이 가능하며, 도심과 항만이 인접하여 농업 개발이 용이하다. 이 지역은 대두, 쌀, 옥수수, 밀 등 곡물의 주요 생산지이며, 남동부 지역과 함께 채소의 주산지이다.

□ 농업 구조의 이중성

- 농업 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 구조의 이중성이다. 기계화된 자본집약적 대규모 농업과 자원이 빈약한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모순되는 두 가지 농업정책을 통해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와 가족농(family farming)을 지원하고 있다.
-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는 대체로 단일 경작을 하는 수출 주도형 농업 관련 사업으로, 해당되는 대상은 총 520만 농촌 가구의 15%, 농촌 토지의 3/4 이상이며, 농업 총생산액의 62%를 차지한다.
 - 애그리비즈니스는 대두, 쇠고기, 오렌지주스, 커피, 설탕 등 주요 수출 상품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 가족농은 소유자에 의해 경영되고 가족노동(family labour)을 고용한다. 가족농은 전체 농촌 가구의 약 85%로 440만 가구에 달하며, 가족농의 평균 토지 면적은 18ha로 애그리비즈니스의 5.8% 수준이다.
 - 가족농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카사바의 87%, 두류의 70%, 우유의 58%, 가금류의 50%를 생산한다.
- 다른 국가와 달리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각각의 기능을 달성하면서 농업의 이중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 애그리비즈니스는 브라질 농축식량공급부(MAPA)에서, 가족농과 식량 안보는 농업개발부에서 담당한다.
 - 정부는 오랫동안 애그리비즈니스와 대규모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농업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였고, 잉여농산물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다. 가족농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해 약화된 적도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다.

04 | 물류

가. 물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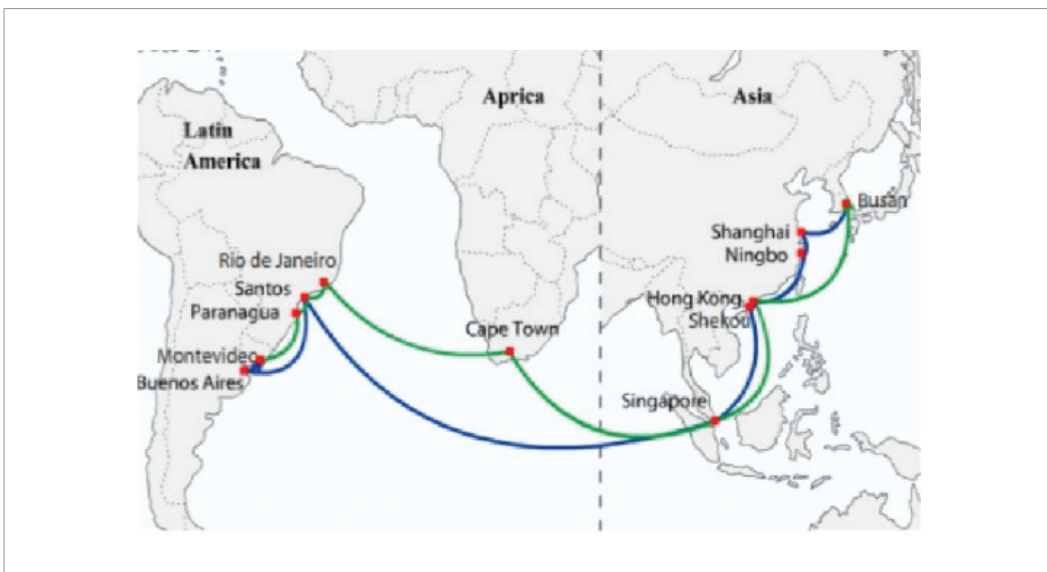
-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을 할 때, 해상은 파라나과항, 또는 마나우스항을 이용하고, 항공은 과룰류스 공항을 이용하는 경로를 주로 이용한다.

» 주요 공항



출처: www.mapsofworld.com

» 주요 해상



주: 가장 물동량이 많은 산토스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산에서 출발하여 인도양과 대서양을 지나 산토스항에 도착함
출처: 글로벌비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나. 물류 경로

□ 육상

1) 도로

- Dom Cabral 재단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82%가 현재 주요 운송수단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육상 네트워크는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이 위치한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운송시장은 1990년대 말 이후 광범위한 통합 작업이 진행되어 현재 유럽의 다국적 대형 물류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남부지역, 특히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등 경제 중심지에 위치한다.
- 브라질은 거의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도로 운송이 역내 교역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등장하였고, 다양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 총도로 길이는 약 150만km로, 세계 12위지만, 그중 포장상태가 양호한 도로는 1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로의 질이 좋지 않다.

2) 철도

- 국가철도수송연합(Associação Nacional de Transporte Ferroviário: ANTF)에 따르면, 브라질 철도의 평균 속력은 23km/h로, 미국의 철도의 평균 속력인 80km/h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 철도 네트워크는 남부, 남동부, 북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철도 네트워크는 매우 취약하다.
 - 특히 중부지역은 농업 및 광업 부문에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해안 및 항만까지 연결되는 철도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농산물과 광물 운송은 철도보다 약 1.7배 비싼 트럭 운송으로 대체하고 있다.
- 현재 철도 민영화로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철도 인프라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농산물 등의 자원 운송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예상 수출경로 및 운임

-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할 때 내륙에서는 육상을 이용한다. 이때 주요 경로는 산토스, 비토리아, 이타자이 등의 항구에서 상파울루, 캄피나스, 피라시카바, 벨로오리존치 등 주요 도시까지이다.
 - 산토스, 비토리아, 이타자이 3개 항구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운임비는 산토스에서 벨루오리존치까지 3,700달러, 비토리아에서 브라질리아까지 5,058달러, 이타자이에서 캄피나스까지 2,000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항구에서 가장 요금이 비싼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 육상 운임

구분	도시	거리(km)	운임(USD)(20,40피트 동일)
산토스	상파울루	76	700
	캄피나스	169	1,000
	피라시카바	237	1,300
	벨루오리존치	680	3,700
비토리아	상파울루	993	2,600
	캄피나스	1,050	3,150
	브라질리아	1,375	5,058
이타자이	상파울루	640	1,900
	캄피나스	680	2,000
	쿠리치바	210	950

주: 상기 가격은 일반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운송비용임
출처: HYC(Harvey Yaffee Companies) Logistics

□ 해상

1) 주요 항만

- 주요 항만은 산토스항, 리오그란데항, 이타자이항, 리우데자네이로항, 비토리아항, 파라나과항 등으로 대부분 남부 및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상위 40개 항만이 전체의 물동량의 90%, 나머지 중소 98개 항만이 10%를 차지한다.
- 최근 급증하는 무역량에 따라 대부분 항구에서 시설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 열악한 항구 인프라 때문에 항구까지의 운송비용보다 항구 도착 이후 통관 과정을 거쳐 화물을 찾기까지의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산토스항
 - 산토스항은 상파울루의 산토스시에 위치해 있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최대 항구이다. 2015년에 약 36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즉 20피트 컨테이너 약 36만 개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GDP의 6.5%를 차지하며 모든 주(27개) 수출입 물동량의 38%가 산토스항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 주요 수출입 품목은 곡물, 각종 농산물, 커피, 자동차, 비료, 금속, 육류, 섬유 등 매우 다양하다.
- 파라나과항
 - 파라나과항은 APPA에서 민간과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다량의 대두를 포함한 최대 규모의 곡물 수출항이다. 주로 각종 곡물, 육류, 광석, 원유, 농약, 자동차 등을 수출입한다.
 - 항만 내에 수직과 수평 사일로(Silo) 시설 및 6대의 하역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98만 5,000톤의 곡물 저장 가능하며 하루 10만 톤 규모의 선적 처리가 가능하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특히 다른 항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와 현대화 수준이 매우 높고, 산토스항에 비해 주변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높다.
- 물동량 기준으로 산토스항에 이어 브라질의 제2항구이며, 상파울루, 산타카타리나, 마투그로수두술주 등과 파라과이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이다.

○ 비토리아항

- 비토리아항은 비토리아만(Bay of Vitória)이 좁기 때문에 브라질의 모든 항구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항구이다.
- 커피 및 사탕수수 농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생겨난 항구이며, 주로 에스피리투산투, 리우데자네이루, 바이아주 등을 연결한다.

- 그 외 리우그란데항은 브라질 남부 3주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을 연결하며, 리우데자네이루항은 세계 3대 미항으로서 시설 및 규모 면에서 브라질 최대 항구이다.

2) 예상 수출경로 및 운임⁵⁾

-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할 때 해상을 이용할 경우 주로 부산항을 통해 산토스, 파라나과, 마나우스 등의 항구로 연결된다.
 - 해상운임은 2017년 5월 현재 20피트 컨테이너당 약 3,500달러(부대비용 별도)이나 15일 단위로 큰 폭으로 인상/인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적 시점에 정확한 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소요 기간은 산토스항까지 약 37일, 파라나과항까지 39일, 마나우스항까지 32~39일로서, 대체로 30~40일 소요된다.
 - 그러나 이후 통관·검역 과정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달 이상 시간이 소요돼서 실질적인 운송기간은 보다 길어진다.

□ 항공

1) 주요 공항

- 전국 각지에 국제공항과 국내선 공항이 산재하나,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비교하면 인프라나 실적이 많이 뒤처지는 실정이다.
 - ACI(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국제공항 중 연간 화물 운송량 1위는 미국의 멤피스 국제공항으로 359만 8,500톤이며, 인천 국제공항은 5위로 214만 9,937톤인데 반해 브라질의

5) 대일해운항공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상파울루 과룰류스(Guarulhos) 국제공항은 47만 944톤에 불과하다.

- 주요 공항은 상파울루에 위치한 과룰류스 공항, 콩코냐스(Congonhas) 공항,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갈레어웅(Galeão) 공항, 산토드몽(Santo Dumont) 공항 등이다.
 - 전국 주요 도시에 121개 공항이 있으며, 그중 63개소가 공항관리공사 INFRAERO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 상파울루시 소재 과룰류스 국제공항의 경우 2013년 기준 3,597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으며, 연간 화물 처리량은 34만 3,785톤, 연간 운항 편수는 28만 4,184편이었다.

2) 예상 수출경로 및 운임⁶⁾

-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할 때 항공을 이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통관에 따라 과룰류스 공항, 비라코푸스 공항으로 선택적으로 발송된다.
 - 대체로 비라코푸스 공항은 직항 서비스를 진행하나, 과룰류스 공항은 마이애미, 밀라노, 엘에이 공항 등 환적공항을 1~2회 경유하기 때문에 짧게는 3~4일,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된다.
 - 항공운임은 2017년 5월 현재 1kg당 5,000원 정도이나 해상과 마찬가지로 항공편, 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운임은 화물 무게가 소량일 경우에는 1kg당 운임이 높지만 100kg, 300kg, 500kg 등 무게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운임단가가 낮아지므로 이러한 점도 확인하여야 정확한 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

6) 대일해운항공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Part II

| 농식품 시장 동향 |

- 01. 생산동향
- 02. 유통동향
- 03. 소비동향
- 04. 수출입동향
- 05. 식품정책 동향
- 06. 한국식품 동향





Brazil

Part II

농식품 시장 동향

01 | 생산동향

가. 신선농산물

- 브라질은 재배 면적이 넓고 기후가 다양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오렌지 농축과즙 생산국이며, 특히 과일생산에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갖추어 바나나, 토마토, 사과, 수박, 망고, 파인애플 등 약 300종 이상의 과일이 생산된다.
- 축산물 가운데 닭고기 생산량은 연간 1,000만 톤 이상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 신선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오렌지	18,503	19,811	18,013	17,550	16,928
바나나	6,969	7,329	6,902	6,893	6,954
토마토	4,107	4,417	3,874	4,188	4,303
사과	1,279	1,339	1,340	1,231	1,379
닭고기	10,693	11,422	11,535	11,964	12,519
쇠고기	9,115	9,030	9,307	9,675	9,723
돼지고기	3,195	3,227	3,150	3,117	3,192

출처: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곡물의 경우, 브라질은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으로 2014년 사탕수수 생산량이 약 7억 3,600톤에 이르렀다. 뒤를 이어 대두 및 옥수수 생산량은 각각 약 8,600만 톤과 약 8,000만 톤에 이르렀다.

- 사탕수수의 경우 상파울루, 알라고아스, 페르남부쿠, 미나스 제라이스, 마토 그로소, 마투그로수두술, 고이아스, 파라나 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 대두는 브라질이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1960년대 이후로 40년 동안 생산량이 3,000%이상 증가하였다.
- 또한카사바도 곡물들 중 생산량이 높은 편인데 브라질에서는 ‘만디오카’라고 불리며 주로 건조 칩, 전분, 에탄올, 전분 추출 생산물의 가공에 쓰이는 중요한 식용작물이다.
- 한편 밀은 곡물들 중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기후조건이 밀에 적합하지 않아 재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곡물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탕수수	717,464	734,006	721,077	768,090	736,108
대두	68,756	74,815	65,849	81,724	86,761
옥수수	55,364	55,660	71,073	80,273	79,882
카사바	24,967	25,350	23,045	21,484	23,253
쌀	11,236	13,477	11,550	11,783	12,176
밀	6,171	5,690	4,418	5,738	6,262
감자	3,548	3,917	3,732	3,554	3,690

출처: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나. 가공식품

- o 가공산업 중 식품가공산업은 규모 및 수익성이 가장 큰데, 품목별로는 소시지 제품 생산량이 2013년 기준 341만 7,751톤으로 가장 많았다.
 - 가공식품에 대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가공식품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가공식품 생산량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공식품(톤)					
소시지	2,395,546	2,742,886	2,934,986	3,184,982	3,417,751
파스타면	1,198,097	1,417,646	1,538,721	1,696,286	1,842,993
잼, 젤리	269,926	341,813	381,457	433,049	481,086
가공생선(기타)	169,466	227,970	260,234	302,221	341,315
베이컨, 햄	122,336	120,984	125,753	131,959	137,737
가공생선	5,839	8,129	9,392	11,036	12,566
유제품(톤)					
가공 액상우유	9,702,902	10,869,650	11,513,078	12,350,424	13,130,072
치즈	536,442	694,943	782,352	896,104	1,002,017
크림	343,144	409,396	445,932	493,479	537,750
아이스크림	454,638	480,860	495,321	514,140	531,662
버터	150,543	166,001	174,525	158,618	195,947
음료류(L)					
맥주	10,719,870,000	11,940,650,000	12,613,870,000	13,490,000,000	14,305,750,000
차/커피	84,510,000	90,140,000	92,960,000	97,830,000	102,340,000

출처: BMI (www.bmiresearch.com)

- 유제품 가운데 가공액상우유 생산량이 2013년 기준 약 1,300만 톤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외 치즈, 크림, 아이스크림, 버터 등도 2009년부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음료 생산량은 전체 식품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맥주, 차·커피 생산량의 비중이 매우 높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는데,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 2013년 기준 커피 생산량은 1억 리터를 넘으며, 주로 세하도 및 산토스 주에서 생산된다.
- 브라질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형 식품 생산업체는 주로 생산 시스템 현대화 및 R&D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육가공 업체이다.
 - Bf Brasil Foods SA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육가공 업체 중 하나로 돼지고기와 가금류(주로 닭고기와 칠면조) 생산과 판매 및 품종 개량이 주력이다. 또한, 냉동 파스타, 대두 가공, 냉동 채소 유통 부문에도 진출하였다. 경쟁업체인 Eleva Alimentos와 Sadia SA 인수를 통해 브라질 최대의 식품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국내 사업 이외에 중동, 동부, 동부 유럽, 중앙 아메리카, 일본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주요 수출시장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 식품 생산업체 현황(상위10위)

순위	업체명	기본 정보
1		설립연도 : 1921년 특 징 : 스위스계 식품 제조업체로 유제품, 즉석 식품, 커피 및 스낵과 초콜릿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품 이외에도 애완동물 사료에서 매출 증대 중 브 랜 드 : Maggi, Nescafe, Kit Kat, Ninho 등 61개 브랜드
2		설립연도 : 1912년 특 징 : 가공식품업계 2위 업체로서 10,000여 명의 직원과 17개 공장을 보유. 주요 품목은 비스킷, 초콜릿, 스낵, 사탕 등 브 랜 드 : Nabisco, Lacta, Trident, Halls, Club Social, Oreo, Tang 등
3		설립연도 : 2012년 특 징 : 프랑스계 유제품·치즈 업체, 브라질 Balkis, LBR 유제품, 치즈 업체들을 인수하여 진출 브 랜 드 : Batavo, Elegê, Galbani, Presidente 등
4		설립연도 : 1970년 특 징 : 프랑스계 Yogurt, 생수 제조업체 브 랜 드 : Activia, Danette, Danoninho, Bonafont 등
5		설립연도 : 1953년 특 징 : 1953년 브라질 음료업체 Refrigerantes Sul Rio-Grandense SA로부터 생산시작 브 랜 드 : Quaker, Gatorade, Lipton Ice Tea, Toddyngo, Elma Chips, Ruffles 등
6		설립연도 : 1929년 특 징 : 세제용품으로 생산 시작, 이후 가공식품, 세제용품 등 판매 브 랜 드 : Arisco, Hellmann's, Lipton Ice Tea, Knorr, Ades 등
7		설립연도 : 1905년 특 징 : 식용유, 토마토 소스, 버터, dressing 등 식료품 제조업체 브 랜 드 : Soya, etti, Primor, Delícia, Salsaretti 등
8		설립연도 : 2009년 특 징 : 브라질 최대의 육류 가공 식품업체들인 Sadia와 Perdigão의 합작으로 설립 브 랜 드 : Sadia, Perdigão, Qualy
9		설립연도 : 1965년 특 징 : 전 세계 주요 곡물산지를 장악하고 곡물 공급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용유, 토마토 소스, 식재료, 식품 및 음료 산업에 다양한 원재료를 공급 브 랜 드 : Liza, Pomodoro, Elefante, Mazola, Maria 등
10		설립연도 : 1961년 특 징 : 70년의 역사를 가진 브라질 파스타와 쿠키업계 1위 회사, 밀가루 음식, 비스킷, 스낵, 버터 생산업체 브 랜 드 : Adria, Isabela, Zabet, Basilar, Vitarela, Pilar 등

출처: BMI (www.bmiresearch.com)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가. 유통시장 동향

1) 비(非)점포 소매업의 확대

- 점포기반 소매업에는 식료품·비식료품 소매점, 혼합형 소매점, 고급형 소매점, 가격 할인 소매점 등이 포함되며, 비(非)점포 기반 소매점에는 직거래 판매, 홈쇼핑, 인터넷, 자판기, 모바일 판매 등이 있다.
 - 2016년 기준 점포기반 소매점의 매출액은 약 8,300억 BRL이었으며 비점포 소매점은 약 740억 BRL로 최근 5년 간의 매출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소매점 간 매출액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1년에는 점포 소매점이 비점포 소매점에 비해 약 14배인 데 비해 2016년에는 약 11배로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추세는 연도별 성장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점포기반 소매업의 경우 약 36% 성장한 데 비해 비점포기반 소매업은 약 75% 성장하여 성장률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별 점포 유무별 매출액

단위: 10억 BRL,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대비 2016 성장률
점포기반 소매업	613	669	726	782	799	831	35.7
비점포기반 소매업	43	49	55	64	69	75	74.8

* 주: 소수점 이하는 절사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www.euromonitor.com)

- 이와같이 비점포기반 소매업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중요한 원인은 인터넷 소매업의 매출액 증가이다.
 - 2012년 대비 2016년 매출액 변화율은 인터넷 소매업이 약 81%나 증가함으로써 주요 비점포 기반 소매업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났다. 특히 모바일 소매업은 201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세부 비점포기반 별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대비 2016 변화율
인터넷 소매업	5,735	6,818	8,326	9,600	10,368	80.8
모바일	172	306	458	720	985	472.7
기타	5,563	6,512	7,868	8,880	9,383	68.7
직거래	7,608	8,315	9,160	9,343	10,233	34.5
홈쇼핑	337	364	390	412	422	25.2
자판기	120	130	144	153	166	38.3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www.euromonitor.com)

2)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의 확대

- 식품 소매업체는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와 현대적 식품 소매업체로 나눌 수 있는데 두 형태의 소매업체 모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현대적 식품 소매업체와 비슷하거나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4년 대비 2015년 현대적 식품 소매업체의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은 6.3%인데 반해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는 6.5%이며,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은 현대적 식품 소매업체와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 특히 주거지역의 소비형태가 현대적 식료품 소매업체에서 전통적 식료품 소매업체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은 필요한 제품만을 구매하게 되었고, 주거지역에 현대적 식료품 소매업체가 진출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 주거지역에 Mercadinhos de bairro, Vendinas, Quitandas 등의 독자적인 영세 식료품 업체들이 인기가 많고 대중적이다.
 - 주로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며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거의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현대적 식품 소매업체와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의 매출액

단위: 10억 BRL,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편의점	0.2	0.2	0.4	0.7	1.4	1.7
할인점	3.5	4.2	4.9	5.6	5.6	5.6
포어코트 소매점	2.9	3.6	4.1	4.7	5.2	5.6
하이퍼마켓	40.1	43.3	46.6	49.8	51.7	53.8
슈퍼마켓	47.0	50.9	55.6	60.1	64.6	71.6
현대적 식품 소매업체(총계)	93.8	102.2	111.6	120.9	128.5	138.2
전년대비 증가율	-	9.0	9.2	8.3	6.3	7.5
음식/음료/담배 전문점	19.0	20.7	22.1	24.0	25.7	28.0
독립적인 소형 식료품점	61.7	65.3	69.3	74.1	78.7	84.5
기타 식료품 소매점	11.9	12.8	13.7	14.6	15.5	16.4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총계)	92.7	98.7	105.1	112.6	119.9	128.9
전년대비 증가율	-	6.5	6.5	7.1	6.5	7.5
유통 소매업체(총계)	186.5	201.0	216.8	233.6	248.4	267.1
전년대비 증가율	-	7.8	7.9	7.7	6.3	7.5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www.euromonitor.com)

3) 대형 소매업체의 확장 가속화

- 매장의 통폐합 등 식품소매점들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빵데아수카르, 월마트, 까르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통폐합되고 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주거지역 인근 상점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전통적 식품 소매업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을 운영하던 대형 소매업체들이 작은 상점이나 편의점을 오픈하기 시작하였다.

4) 고급식품점 증가

- 경기불황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슈퍼마켓 또는 소규모 상점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상류층 소비자를 위한 고급식품 상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현상은 상류층과 중·하류층 간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상류층의 경우 경기 불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0.502를 기록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분배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별 지니계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니계수	0.501	0.500	0.501	0.501	0.502	0.502

* 주: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심화. 통상 0.4를 상회하는 경우 소득분배 불평등 심함.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www.euromonitor.com)

5)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시장 확대

- 인터넷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6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소형 식품품 소매업체의 온라인 시장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ia Brasileira de Distribuição와 Wal-Mart 및 소규모 지역 업체인 Extra Plus 등 다수의 업체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arrefour는 2010년 인터넷 소매 사이트를 시작했지만 이익이 낮아 2012년 말에 채널에서 운영을 중단했으나 2017년 중반까지 온라인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6) 경기침체로 저가제품 위주 구매 성향

-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고 큰 지출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실제로 소매품과 식품품 분야에서 저렴한 물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그러나 환율 안정성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향후에는 유통업도 서서히 경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가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이미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저가 제품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이용 증가

- 소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식품 업체들은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까르푸는 2016년 12월 70번째 편의점을 오픈하였으며, Mini Mercado Extra(편의점)도 2년 이내에 180개 점포 개장, 그 외 Minuto Pao de Acucar Minuto, Dia Market, and Mambo Express 등의 타 점포들도 들어서고 있다.
- 또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유통되는 신선한 식품품과 간편한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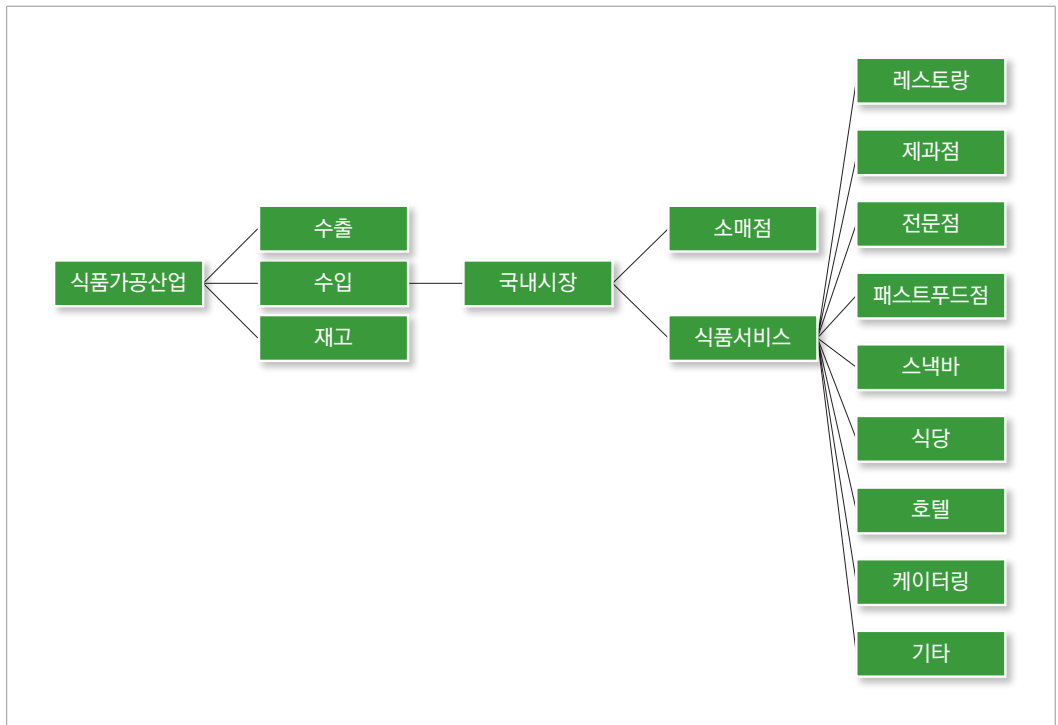
부록

나. 주요 유통 채널

1) 식품 유통구조

- 유통구조는 수입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이 국내 소매점 및 식품 서비스로 유통되는 형태이다. 식품 서비스의 유통채널은 주로 레스토랑과 제과점이며, 소매점은 전통식 유통채널과 현대식 유통채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식품 유통구조



출처: Easy Brazil Investing

2) 전통적 유통채널

- 전통적 유통채널은 크게 재래시장과 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래시장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마케팅보다는 가격 및 신선도가 가장 우선시되어 모든 소득 계층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
 - 재래시장에는 페이라(Feira, 이동식 노천시장 또는 장터) 및 시립시장이 포함된다. 특히 페이라는 브라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 판매채널로서 한국의 5일장과 비슷하게 특정 지역의 도로를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신선한 농축수산물만 거래되는 곳이다. 현지에서 재배된 농축수산물만이 거래되며 영업시간은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 현지 페이라 모습



- 특히 브라질 내 일본촌 페이라는 일반적인 페이라 형태가 아니라 관광지화가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포장마차 형태에 가깝다.

» 브라질 내 일본촌의 페이라 모습



- 한편 시립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재래시장으로 페이라와 달리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농수산물, 치즈, 파스타, 소스류 등의 수입식품 및 가공식품이 판매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전통적 유통채널의 하나인 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수입산과 현지산 도매시장을 따로 운영하며 요일별로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대형 소매점도 갖추고 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3) 현대식 유통채널

- 현대식 유통채널은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할인점, 클럽스토어,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이 있다. 규모면에서는 하이퍼마켓이 가장 크며 편의점이 가장 작다.

» 현대식 유통채널의 특징

구분	특징
하이퍼마켓	- 식료품과 다양한 범위의 잡화(비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 매장형태 - 일반적으로 2,500평방피트 이상의 규모 - 전통적으로 도시 외곽에 많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점차 도심지역으로 진입 - 대표 업체로는 월마트, 까르푸, 비아브라질, 슈퍼파밀리아 등이 있음
슈퍼마켓	- 가장 기본적인 셀프서비스 방식의 식료품 유통매장 - 규모는 300~2,500평방미터로 분류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잡화(생활용품, 미용도구 등) 등을 판매 - 세탁 서비스나 매장 내 ATM 등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 - 빵데아수카르, 엑스트라, 까르푸바이로, 브레타스, 메르칸치우호드리게스, 수페르메르카두스카르도스, 콘도르슈퍼센터, 자파리, 수페르무파투가 이에 해당
할인점	- 일반적으로 500~1,500 평방미터로 슈퍼마켓과 동일한 규모로 분류 - 슈퍼마켓의 면적보다는 작은 곳이 대부분 - 슈퍼마켓과 구별되는 특징은 저가 제품, 자체제작(라벨)상품의 보급, 부가가치 서비스의 미비(no-frills), 높은 제품회전율 등
클럽스토어	- 도매업자, 비즈니스, 오너, 대가족 대상 식품과 생활용품 판매 - 대표기업으로는 샘스클럽, 맥시아타카두, 아시아 아타카지스타, 마크로가 있음
편의점	- 보편적 규모는 300 평방미터 미만 - 운영시간이 길고 방문고객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함 - 주로 패스트푸드와 음료(제과, 음료와 스낵식품) 및 비식품을 판매 - 일반적으로 품목당 2~3가지의 브랜드의 재고 보유 - 다른 유통채널보다 상품가격이 높은 편 - 엑스트라, 까르푸익스프레스, 5미니트, 프록시, 세르파, 디페르, 스마일마켓, am/pm 등
드럭스토어	- 식품 및 화장품의 새로운 유통채널 - 가격은 마트보다 비쌌음 - 24시간 운영으로 접근성과 용이성이 높음 - 주로 다이어트 식품, 시리얼바, 조제분유, 음료 판매

출처: BMI (www.bmiresearch.com), “농수산식품창조적수출전략 중남미편”, (한국농수산식품공사, 2014)

-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현지기업의 경쟁구도 속에서 까르푸, GPA(Grupo Pão de Açúcar, 그루포 빵데아수카르), 월월마트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성장시켜 왔다. 주요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

»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2016)⁷⁾

순위	업체명	특징
1	<p>CARREFOUR</p> 	<p>설립연도 : 1975년 연매출(R\$) : 49,103,325,988</p> <p>특 징 : 브라질 2위 유통업체인 까르푸 브라질은 브라질에 글로벌 소싱 기능은 없고 홍콩에 있는 자사 사무실을 통해 구매.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약국, 편의점, 캐시앤캐리, 도매업체 등이 있음. 대형마트(Hypermarket) 식 시대를 주도함. 저렴한 가격 홍보로 브라질 전국에 퍼져 있음.</p> <p>매장(개소) : 329 직원수(명) : 80,021</p>
2	<p>GPA (PÃO DE AÇUCAR)</p> 	<p>설립연도 : 1948년 연매출(R\$) : 44,969,000,000</p> <p>특 징 : 하이퍼마켓 엑스트라, 슈퍼마켓 브랜드 빵데아슈카르, 엑스트라, 도매마켓 아시아 아타카지스타(Assai, Atacadista) 체인 등이 있음. 브라질 내 가장 많은 매장수를 보유하고 있음. Pão de Açúcar(고급 마트), Extra(중산층), Assai(저소득층) 등 대형마트 브랜드들이 있음. 브라질 전국에 퍼져 있음.</p> <p>매장(개소) : 904 직원수(명) : 99,575</p>
3	<p>WALMART</p> 	<p>설립연도 : 1995년 연매출(R\$) : 29,409,150,946</p> <p>특 징 : 다른 유통업체들과 달리 직접 수입을 통해 제품을 조달하며 주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함.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며 브라질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월마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간 수입상을 통하지 않고 제품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든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클럽스토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주유소 등 10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음.</p> <p>매장(개소) : 485 직원수(명) : 65,229</p>
4	<p>CENCOSUD BRASIL COMERCIAL LTDA</p> 	<p>설립연도 : 1987년 연매출(R\$) : 8,601,070,561</p> <p>특 징 : 칠레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로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매장이 있음. 브레타스와 메르칸치우 호드리게스, 수페르메르카두스 카르도소 등 3개의 슈퍼마켓과 제과점 체인인 체인 페리니, 하이퍼마켓 슈퍼 패밀리아 등이 있음. 30년 역사.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에 진출해있음. Gbarbosa, Mercantil Rodrigues, Perini, Bretas, Prezunic 마트 브랜드들 소유함.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함. 북동부, 남동부 지역에 퍼져 있음</p> <p>매장(개소) : 211 직원수(명) : 22,839</p>
5	<p>DIA BRASIL SOCIEDADE LTDA</p> 	<p>설립연도 : 2001년 연매출(R\$) : 7,162,377,000</p> <p>특 징 : 스페인계 업체이며 2001년에 브라질에 상륙함. DIA 마트에서 자체 브랜드 (DIA)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들은 브라질 최고의 판매율을 기록함. 1,050개의 자체 매장 및 체인점(프랜차이즈)식이 있음.</p> <p>매장(개소) : 1,050 직원수(명) : 10,497</p>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7) 상위 매출 10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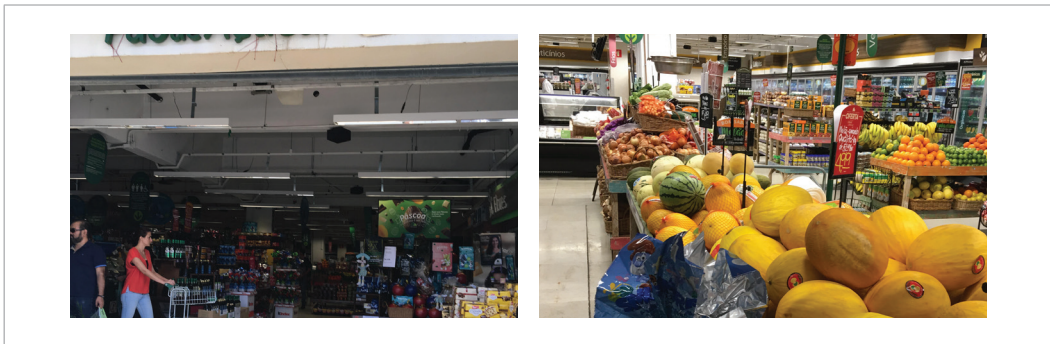
순위	업체명	특징
6	MATEUS SUPERM. S/A 	설립연도 : 1986년 연매출(R\$) : 6,485,540,199 특 징 : 북동부 지역 범위에서 영업함 매장(개소) : 37 직원수(명) : 14,338
7	IRMÃOS MUFFATO & CIA. LTDA 	설립연도 : 1975년 연매출(R\$) : 5,078,135,497 특 징 : 브랜드로는 슈퍼마켓인 슈퍼무마투, 도매마켓인 무파투 맥스 아타카두 등이 있음. 상파울루주 내륙 지방과 Parana(파라나)주 범위에서 매점들을 보유함. 매장(개소) : 48 직원수(명) : 11,013
8	COMPANHIA ZAFFARI COMERCIO E INDUSTRIA 	설립연도 : 1965년 연매출(R\$) : 4,958,000,000 특 징 : 쇼핑물 형태의 슈퍼마켓이며, 브랜드로는 자파리와 부르봉 슈퍼마켓, 부르봉 쇼핑몰이 있음. 1965년 브라질의 Rio Grande do Sul (남부 지역)주에서 1호 슈퍼마켓 개업함. 중상층 고객 유치함. 주로 남부 지역 범위에서 영업함. 매장(개소) : 34 직원수(명) : 11,614
9	SUPERMERCADOS BH COMERCIO DE ALIMENTOS LTDA 	설립연도 : 1996년 연매출(R\$) : 4,956,052,560 특 징 : 1996년 설립. Minas Gerais(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대형마트 1위 업체임. 매장(개소) : 167 직원수(명) : 16,559
10	SDB COMERCIO DE ALIMENTOS LTDA 	설립연도 : 2011년 연매출(R\$) : 4,840,262,600 특 징 : 중서부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매장(개소) : 53 직원수(명) : 8,957

- 아울러 센코스уд(Cencosud)는 칠레의 대형 유통그룹으로 2007년 브라질 유통업체인 지바르보사 (Gbarbosa)를 인수하며 진출하자마자 업계 4위에 올랐다.
- 다음으로 브라질 현지기업 자파리(Companhia Zaffari)와 이르마우스 무파투(Irmãos Muffatoe Cia Ltda)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까르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매업체로서 월마트와 테스코에 이어 세계 3위의 소매업체이다.
 - 서유럽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중국 같은 주요 식품 소매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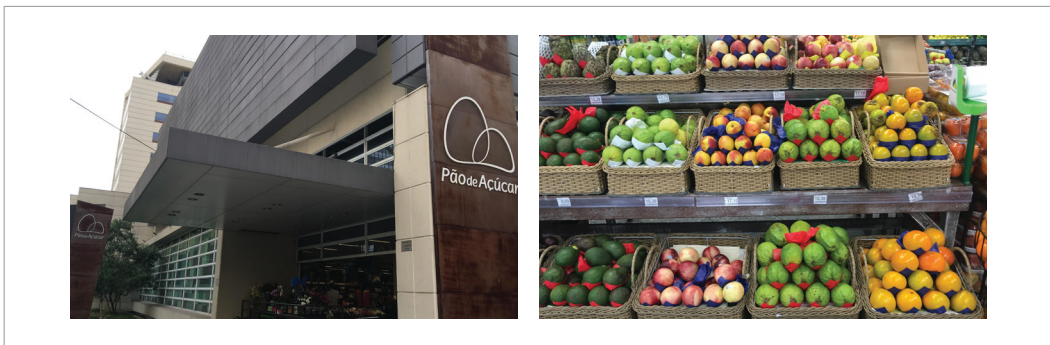
- 월마트는 세계 최대 소매업체로 미국, 영국 이외에 영국 이외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인도 및 일본에서 국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해외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형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발전시키고 있다.
 - 2016년 1월 브라질에는 499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센코수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매장을 소유한 칠레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이다.
- 센코수드 슈퍼마켓의 하나인 빵데아수카르는 일반매장과 고급매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매장 모두 품목 구성은 비슷하지만 고급매장이 일반매장에 비해 매장 건물이나 품목 진열 면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빵데아수카르의 품목구성은 한국 내 유통업체들과 동일하게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과자, 유제품, 소스류, 음료, 초콜릿, 유기농 식품, 즉석식품, 씨리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빵데아수카르(일반매장, 고급매장) 비교

일반매장



고급매장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다. 농식품 판매현황

- 브라질 내 대형 유통업체, 하이퍼마켓, 편의점, 일본식품 수입·유통업체 등을 기준으로 주스류, 제과류, 제과류, 면류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원산지도 브라질 자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수입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브라질 식품점 내 식품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자파리 제품명: ○○과일음료 원산지: 한국 중 량: 235ml 가 격: 3.90BRL		판매처: 히로따 제품명: ○○○차 원산지: 한국 중 량: 350ml 가 격: 6.98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Red Bull 원산지: 오스트리아 중 량: 355ml 가 격: 8.86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issin Lamien 원산지: 일본 중 량: 80g 가 격: 1.45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ISSIN CUP NOODLES 원산지: 일본 중 량: 69g 가 격: 3.49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TURMA DA MONICA 원산지: 브라질 중 량: 80g 가 격: 1.45BRL
	판매처: 자파리 제품명: PAO DE MEL 원산지: 브라질 중 량: 100g 가 격: 7.78BRL		판매처: 히로따 편의점 제품명: ○○초코과자 원산지: 한국 중 량: 50g 가 격: 8.48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esfit 원산지: 스위스 중 량: 160g 가 격: 2.95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김스낵 원산지: 한국 중 량: 5g 가 격: 6.09BRL

* 환율 정보(2016) 1헤알(BRL): 334.82원

03 | 소비동향

가. 소비시장 개요

- 브라질은 다인종 국가로서 성향과 소비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특정 트렌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소비동향은 다음과 같다.
- 최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채소, 유기농 제품, 무설탕 제품, 유당제로 제품, 통곡물 제품, 글루텐 프리 제품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주식인 빵이나 육류 수요는 꾸준하며, 그 외 음료나 초콜릿 소비도 많은 편이다. 또한 스시(데마끼)의 영향으로 최근 김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나. 소비 트렌드

□ 건강·웰빙 지향적

- 브라질은 세계 최대 유기농 농산물 생산국이자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계 5위의 기능성 식품 시장이다. 따라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다.

» 기능성 식품



- 특히 브라질 식문화는 달고 짠 음식을 주로 선호하므로 국민들의 비만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건강 지침을 발표하면서 균형잡힌 건강식단을 권장하고 있다.
 - 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에 전년 대비 약 12%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1~2015년 웰빙식품 소매 판매량 역시 연평균 약 13%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가공식품의 연평균성장률 약 10%에 비하면 상승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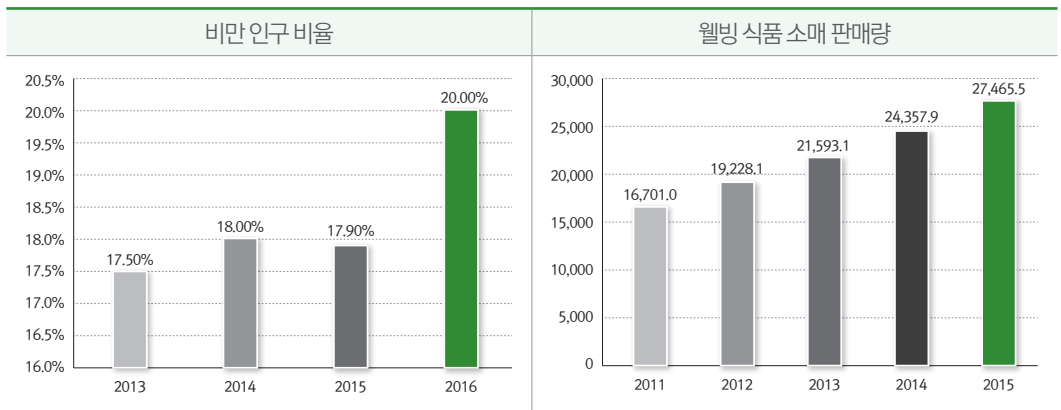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비만 인구 비율 및 웰빙식품 소매 판매량

단위: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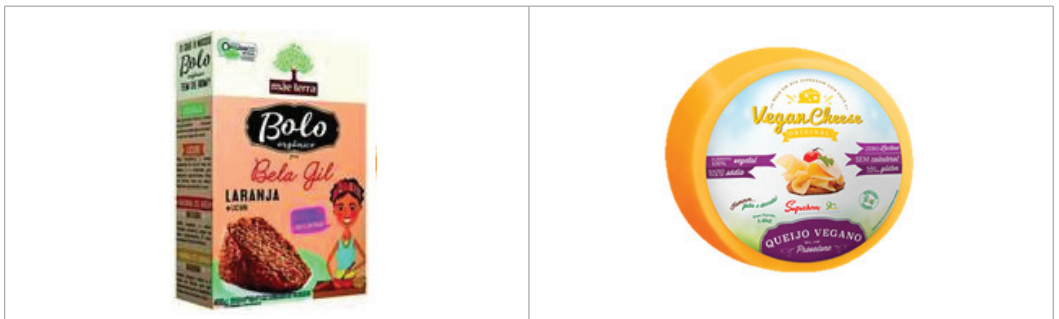


출처 : 브라질보건부(www.saude.gov.br),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www.agr.gc.ca)

- Euromonitor에 따르면 브라질 건강식품 시장은 350억 달러 규모이며, 그중 유기농 시장 규모는 250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음식은 대부분 육류를 기본이지만 ‘채식=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기 대신 채소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uperbom사의 비건치즈

» Terra사의 유기농 오렌지 케이크



- 설탕의 경우 현재 당류 포함 정도에 따라 제로(zero), 라이트(light)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표기를 한 제품으로는 토마토소스, 견, 과자, 식빵 등이 있다. 특히 식빵의 경우 무설탕 또는 설탕을 대폭 줄여 만든 반죽에 각종 견과류를 추가한 건강빵이 인기를 얻고 있다.
 - 최근 유통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 음료에 당류를 과다 사용한다고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 유당제로(Lactoes Zero) 제품은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개발된 제품이나 최근 유당이 포함된 음식이 해롭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일반 소비자 중에도 유당제로 제품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우유, 치즈, 초콜릿, 과자류, 빵류 등의 유당제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도정 과정을 덜 거친 ‘통곡물’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관련제품으로는 통밀 식빵, 통곡물 시리얼 바등이 있다.

» Nestle사의 통곡물 비스킷



» 통곡물 비스킷



- 글루텐 프리 제품은 글루텐 민감증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카사바(감자의 일종)가 대표적인 글루텐 프리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카사바로 만든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중산층 이상은 건강을 중시하면서 신선채소, 건강식 등의 소비가 높은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여전히 기름에 튀긴 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의 소비가 많은 편이다.

□ 높은 쇠고기 수요

- 식품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크게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되는데, 신선농산물 중 특히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 수요는 낮으나 쇠고기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지, 햄, 육포 등 육가공 제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다.

» 신선농산물(채소, 과일)



» 육제품



□ 주식인 제빵류에 대한 높은 소비

- 가공식품 중에서 주식인 제빵류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제과류 역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 제과류의 경우 우유와 곁들여 먹는 곡물 시리얼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 면류의 경우 파스타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라면의 소비 역시 높은 편이다.
 - 파스타면 역시 주식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수입품이 많은데 특히 이탈리아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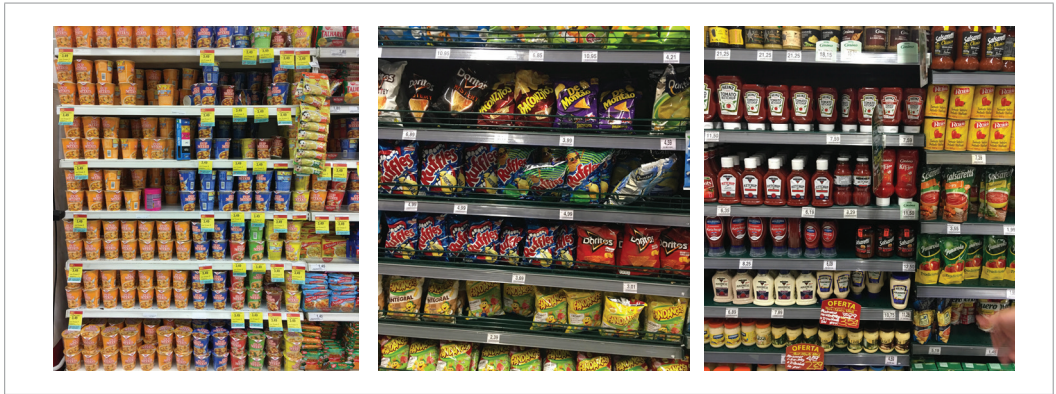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매장에서는 봉지라면과 컵라면 모두 판매되고 있는데, 봉지라면에 대한 수요가 더 높으며, 수입품보다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로 판매된다.
- o 파스타와 더불어 소스류 수요도 높은 편인데, 브라질산 소스뿐만 아니라 타바스코(원산지: 미국) 등 수입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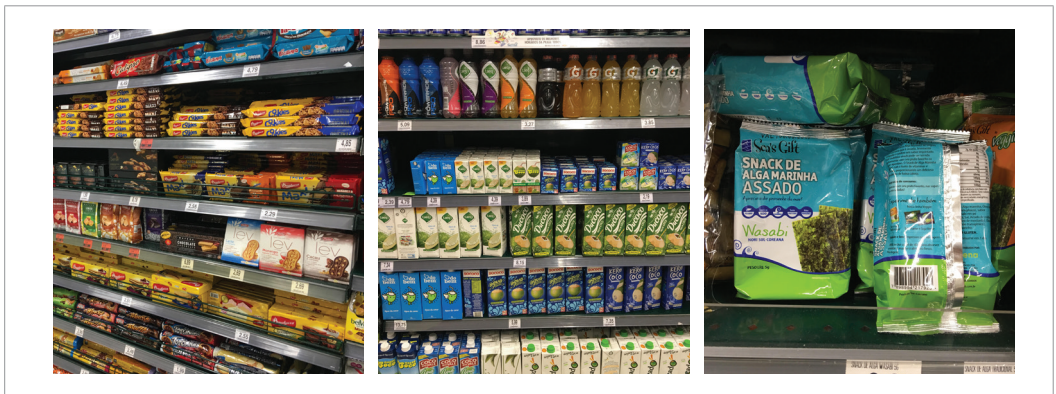
» 면류/ 제과류/ 소스류



□ 음료 및 초콜릿류의 지속적인 인기

- o 그 외 음료류, 초콜릿류와 김도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들이 단맛을 매우 선호하므로 초콜릿뿐만 아니라 초콜릿류 제과제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 o 특히 브라질 음료 제품에는 과일 제품이 많은데 이는 브라질이 과일을 많이 경작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지 제품 중에도 코코넛 음료 제품을 비롯하여 과채음료가 다수 판매되고 있다.

» 초콜릿류/ 음료류/ 김



- 김은 일본 스시의 인기와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현지 마트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주로 일본계 식품 소매점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유통되고 있다.
- 특히 김밥용 김은 데마끼(일본식 김초밥)의 식재료로 인기가 많아 향후에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4 | 수출입 동향

가.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수출 현황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에 따르면, 브라질은 주로 대두, 낙화생, 유채, 해바라기씨 등의 채유용 종자·인삼, 육과 식용 설육, 당류·설탕과자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은 주요 농산물 생산국으로 채유용 종자의 경우 세계 1위 수출국인 미국에 이어 2위 수출국이며, 3위인 캐나다(약 71억 6천만 달러)에 비해 수출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 한편 육과 식용 설육의 경우 세계 2위 수출국인데 최근 닭고기 식품 사고로 인해 육류 수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다.

» 농식품 수출 현황(HS Code 2단위)

단위: 백만 USD

HSCode	품명	2012	2013	2014	2015	2016
12	채유용 종자, 인삼	17,682	23,027	23,500	21,208	19,558
2	육과 식용 설육	13,703	14,786	15,417	13,078	12,656
17	당류, 설탕과자	13,030	12,014	9,616	7,781	10,586
23	조제사료	6,902	7,141	7,363	6,172	5,539
9	커피, 차, 향신료	6,023	4,954	6,536	6,046	5,228
10	곡물	6,552	7,068	4,438	5,725	4,109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2,546	2,544	2,258	2,150	2,209
24	담배	3,257	3,272	2,502	2,186	2,123
16	육, 어류 조제품	1,613	1,533	1,526	1,351	1,301
15	동식물성 유지	2,539	1,846	1,584	1,626	1,251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이를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두, 사탕수수당, 대두유, 커피, 닭고기,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로 육과 식용 설육, 당류·설탕과자, 채유용 종자·인삼, 커피·차·향신료 곡물 등이 수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농식품 수출 현황(HS Code 6단위)

단위: 백만 USD

HS Code	품명	2012	2013	2014	2015	2016
120190	대두	17,240	22,806	23,273	20,982	19,327
170114	사탕수수당	9,814	9,156	7,446	5,899	8,280
230400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	6,595	6,787	7,001	5,821	5,193
090111	커피(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5,722	4,582	6,041	5,555	4,843
020714	닭 절단육 및 설육 (냉동)	4,272	4,199	4,461	3,959	3,952
100590	옥수수(기타)	5,287	6,251	3,876	4,938	3,655
020230	쇠고기 냉동 뼈 없는 것	3,653	4,477,261	4,890	3,953	3,571
170199	사탕수수당(기타)	2,814	2,678,214	2,009	1,740	2,153
020712	닭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	2,460	2,804,730	2,432	2,271	1,993
020329	돼지고기(기타)	1,170	1,131,458	1,386	1,116	1,290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신선 농산물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주로 육과 식용 설육, 채유용 종자·인삼, 과실·견과류, 낙농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중국에는 육과 식용 설육, 채유용 종자·인삼을, 네덜란드에는 채유용 종자·인삼, 과실·견과류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역시 육과 식용 설육 및 낙농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 특히 중국은 2015년 브라질과 인프라, 자원·에너지, 농축산업 등 35개 투자협정을 체결에 힘입어 20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통상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 대상국(2016)

» 육과 식용 설육

단위: 천 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중국	1,752,104
2	홍콩	1,621,638
3	사우디아라비아	1,272,947
4	러시아	1,031,980
5	일본	726,973

» 채유용 종자·인삼

단위: 천 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중국	14,386,898
2	스페인	601,072
3	네덜란드	593,733
4	태국	586,814
5	이란	467,909

» 과실과 견과류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네덜란드	268,413
2	영국	128,931
3	미국	113,165
4	스페인	68,668
5	포르투갈	33,149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가공식품의 경우 주로 對미국 수출 비중이 높았고, 그 외 네덜란드, 중국, 일본과의 수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에는 음료·주류·식초, 채소·과실의 조제품을 주로 수출한다. 특히 對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코코아·초콜릿이고,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당류·설탕과자, 코코아·초콜릿, 채소·과실의 조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음료·주류·식초의 경우 對한국 수출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공식품 주요 수출국(2016년)

» 음료·주류·식초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미국	429,280
2	한국	300,275
3	파라과이	76,379
4	일본	45,523
5	네덜란드	37,847

» 코코아·초콜릿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아르헨티나	124,902
2	미국	120,038
3	중국	32,915
4	네덜란드	30,019
5	우루과이	15,411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낙농품(유제품, 달걀, 꿀 등)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베네수엘라	91,536
2	미국	85,505
3	아랍에미리트	19,484
4	사우디아라비아	15,506
5	파라과이	11,177

» 당류·설탕과자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인도	884,644
2	중국	823,790
3	알제리	709,007
4	방글라데시	666,436
5	아랍에미리트	595,554

» 채소·과실의 조제품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출액
1	벨기에	713,360
2	네덜란드	524,857
3	미국	497,738
4	일본	109,934
5	중국	59,404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2) 수입 현황

- 농식품의 경우 주로 곡물, 동·식물성 유지, 음료·주류·식초, 채소, 과일·견과류, 곡물의 분과 조 분말가루 전분, 낙농품·조란·천연꿀, 채소·과실의 조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 주요 농식품 수입 품목은 밀, 메슬린이며 그 외 맥아, 쌀, 마늘, 와인, 밀가루, 감자 등도 상위 수입 품목이다.
- 농수산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수입 대상국은 아르헨티나이고, 이밖에 우루과이, 미국, 칠레, 파라과이, 중국 등도 주요 수입 대상국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국가별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밀, 밀가루, 맥아류를, 미국에서는 에탄올을, 우루과이에서는 밀, 맥아를, 중국에서는 생선류, 마늘을, 칠레에서는 연어, 포도주, 견과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 농식품 수입 현황(HS Code 2단위)

단위: 천 USD

HS Code	제품명	2012	2013	2014	2015	2016
10	곡물	2,373,751	3,112,254	2,389,341	1,575,358	2,313,323
15	동식물성유지	957,679	953,021	1,017,651	838,220	901,333
22	음료, 주류, 식초	978,522	673,406	849,561	814,182	866,875
07	채소	635,485	797,557	492,220	504,753	859,767
08	과일, 견과류	793,007	789,578	868,038	675,235	701,820
11	곡물의 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850,103	718,845	793,776	574,598	666,18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647,670	605,772	457,914	428,017	660,861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489,973	655,098	652,600	513,910	544,655
21	기타 조제식료품	397,289	463,626	467,785	418,084	351,276
18	코코아 및 초콜릿	390,984	231,200	323,649	260,442	349,002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이를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수입액 기준 주요 10개 품목은 밀, 옥수수, 맥아, 마늘, 감자 등으로, 대체로 곡물 수입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밀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브라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Pao Frances(프랑스식 빵)의 주원료이기 때문이다.

» 농식품 수출 현황(HS Code 6단위)

단위: 천 USD

HS Code	품명	2012	2013	2014	2015	2016
100199	밀과 메슬린	223,149,128	239,620,905	229,060,056	171,446,212	137,552,003
100590	옥수수	1,721,043	2,414,814	1,812,313	1,216,465	1,335,366
110710	맥아	164,607	138,143	103,830	41,352	489,122
030214	신선 또는 냉장 대서양 연어	534,947	526,963	583,691	409,675	480,404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24,373	51,044	234,727	243,259	372,605
040221	고체 형태의 밀크와 크림	261,781	226,532	133,488	161,819	328,567
070320	신선·냉장 마늘	187,069	219,690	171,518	176,024	328,516
20041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감자	205,823	338,863	354,844	295,211	321,910
071333	건조·껍질 벗긴 강낭콩	256,675	284,570	115,371	84,419	288,119
220421	신선 포도의 포도주	260,966	254,319	289,567	258,299	260,206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나. 한국의 對브라질 농식품 수출 현황

- 2016년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의 對브라질 농식품 상위 10개 수출 품목은 과실주스 음료, 베이커리 제품, 라면, 김, 인삼차 등이었다.
 -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 초콜릿 과자류 수요가 높아 초코파이의 수출량이 많았다.
 - 브라질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경우 주로 교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수출량이 많지는 않다.

» 한국 對브라질 농식품 수출 품목

단위: 톤, 천 USD, %

NO	HS Code	품목명	2015		2016		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220290	음료(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 과즙음료 이외 기타), 과실주스 음료	1,232	1,297	1,041	1,036	△15.5	△20.1
2	190590	베이커리 제품(식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 크래커, 미과 이외 기타)	156	637	156	621	-	△2.5
3	190230	라면, 인스턴트면류	129	703	158	614	22.5	△12.7
4	190190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기타)	358	632	305	504	△14.8	△20.3
5	210690	김, 당시럽(향료, 착색제 첨가한 것), 인삼차, 조제품 기타	57	464	38	418	△33.3	△9.9
6	190531	스위트 비스킷	88	426	72	354	△18.2	△16.9
7	190219	국수, 당면, 냉면(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 것 이외 기타)	129	290	99	228	△23.3	△21.4
8	230990	기타 사료용 조제품	230	847	74	228	△67.8	△73.1
9	21050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이외 기타)	165	329	140	222	△15.2	△32.5
10	120991	토마토 종자, 양배추 종자, 기타(채소종자)	0.1	69	0.3	187	100.0	171.0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 한국의 對브라질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국은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기타 베이커리 제품, 기타의 파스타의 경우 중국이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수입국(2016년)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단위: 천USD

순위	수입국	수입액
1	중국	302
2	미국	72
3	베트남	71
4	일본	15
5	홍콩	12

» 기타의 파스타

단위: 천USD

순위	수입국	수입액
1	중국	339
2	미국	83
3	일본	48
4	태국	22
5	홍콩	18

» 기타 베이커리 제품

단위: 천USD

순위	수출국	수입액
1	중국	264
2	미국	78
3	홍콩	55
4	태국	19
5	일본	18

» 기타 조제식료품

단위: 천USD

순위	수입국	수입액
1	중국	339
2	일본	12
3	중국	4
4	베트남	3
5	홍콩	2

출처: 국제무역센터 (ITC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intracen.org)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가. 농식품 정책 일반사항

- 국가식품 및 영양안전정책(National Food and Nutritional Security Policy, PNSAN)의 목표는 식품 및 영양 안전을 촉진하고 식품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 브라질 내 식품 및 영양 불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및 분석하고,
 - 적절한 식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촉진,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및 실행계획을 연결시키며,
 - 생물 다양성 존중, 가족농업·원주민 및 전통 공동체 강화, 적절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 및 접근 보장, 국가식품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 식품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장려하고,
 - 식량 주권에 대한 존중, 적절한 식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제로 기아(Zero Hunger) 정책은 식품 접근, 가족농의 강화, 소득 창출, 표현·동원 및 사회 통제, 4가지 영역에서 20가지 이상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식품 및 영양안전에 대한 브라질의 국가 전략이다.
 - 제로 기아(Zero Hunger) 이니셔티브는 조건부 현금 이전 계획인 "Bolsa Família"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음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을 위한 여러 분야의 공공 개입을 의미한다.
 - Bolsa Família는 제로 기아(Zero Hunger) 정책 중 2010년 예산이 최대 80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의 사업이며, 이밖에 PRONAF(국가 농가 강화 프로그램), PNAE(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있다.

나. 정책 동향

1) 만성 비전염성 질병 퇴치를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

- 2004년부터 어린이들에게 고지방, 설탕, 소금 관련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집행부, 입법부 및 사법부 사이에 광범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 정책, 만성 비전염성 질병 퇴치를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 to Combat Chronic Non-Communicable Diseases, 2011-2022)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2014년 국민 대상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 가이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 식품의 선택, 준비, 소비 관련 정보, 분석, 가이드를 제공하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을 촉진하는 식품 및 영양 교육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로서 활용된다.

» 브라질 국민 대상 식이요법 가이드라인(Dietary Guidelines for the Brazilian population)

- 천연 또는 최소 가공식품을 식단의 기초로 삼을 것
- 식사 준비 시 천연 또는 최소 가공식품을 조리하거나 조미할 때에 기름, 지방, 소금 및 설탕을 소량 사용할 것
- 가공식품의 제한적 소비
- 초가공식품(고열량, 저영양)의 소비를 피할 것
- 적절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신중한 영양 섭취
- 다양한 천연 또는 최소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쇼핑할 것
- 조리 기술 개발
- 음식 준비 계획
- 외식의 경우 갓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선호할 것
- 음식 광고 및 마케팅에 주의

2) 제2차 식량 및 영양보장계획

- 본 정책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브라질 국민의 적절한 식량 권리를 존중·보호·증진·보장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식량 및 영양 보장에 관한 주요 과제를 파악, 99개 계획을 통해 향후 4년간 121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014년 이후 브라질은 더 이상 FAO의 기아지도에서 사라졌지만, 다른 차원의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다. 브라질 국민의 52%가 과체중이고, 18%가 비만이며, 63%는 정기적으로 과일·채소를 섭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영양 결핍이 원인이다.
 - 취약계층의 국민들은 신선한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적절한 식품의 홍보와 비만 퇴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국가식량안보협의회(CONSEA)가 제안한 제2차 식량 및 영양보장계획(PLANSAN 2016-2019)은 2016년부터 4년간 식품 및 영양보장(안전)계획을 통해 매년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주요 과제로는 식료품 공급 촉진, 식품 및 영양 교육, 물 공급 등 식품 및 영양보장(안전 촉진)을 포함한다.

» 제2차 식량 및 영양보장계획

- "Bolsa Familia"(Family Grant Program) 대상 약 1,500만 가구와 매일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4,0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식량을 제공
- 농촌 생산성(rural productive inclusion)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농촌가구(가족농)의 취약성 비율 25% 감소 목표
- 신용대출과 시장 접근, 기술 원조, 무역 지원과 생산 및 수입 보호, 또한 농수 제품 등의 적절한 정책 제공을 통한 가족농 지원
- 2019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780달러 동원, 공공조달을 통해 가족농의 생산물 구입 예정
- 건강식품의 홍보 및 보호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3) 알레르기 예방 관련 식품 성분 표기 강화

- 현재 브라질의 6세 이하 유아 중 6~8%가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알레르기 성분 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위생감시국은 기존 제품 정보는 글자가 너무 작고, 난해한 전문용어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2016년 7월 3일부터 알레르기 유발 위험 17가지 식품에 대한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포함되는 식품은 밀류(호밀·보리·귀리 및 관련 제품),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아몬드, 도토리, 캐슈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리언 너트, Pekan, 피스타치오, 잣, 밤 등이다.

4)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 수입 허용

- 2016년 10월, 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Brazilian National Technical Commission for Biosafety, CTNBio)는 동물사료 생산을 위해 미국의 몬산토사(Monsanto Co)와 신젠타사(Syngenta AG)로부터 3개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 수입을 승인하였다.
 - 'MON 863'은 몬산토사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상업화될 수 있도록 허가된 종자이다.
- 브라질 동물단백질협회(ABPA)는 이러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 수입이 브라질의 미국 옥수수 수입을 촉진시킬 것이며,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소비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브라질 그린피스(Greenpeace)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연에 유입되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식물과 종자의 유전자 공급원이 손실되거나 변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06 | 한국식품 동향

가. 한국식품 판매동향

- 브라질 내 한국식품은 대다수가 한국식품 도·소매점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일본계 소매점에서도 일부 취급된다.
 - 일본계 소매점이 취급하는 상품은 한국에서 직수입하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다수는 한국 수입상을 통하여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한국식품은 브라질 내 현지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브라질 식품소매점에서는 한국식품을 찾기 어려운데, 일부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거나 아시아 식품코너에 다른 국가 제품과 함께 전시하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 브라질 내 식품소매점에서 취급되는 아시아 식품은 주로 일본과 한국식품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중국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신뢰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일본의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으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일본식품은 이미 많이 대중화된 반면 한국식품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식품의 주 소비자층은 한국 교민을 제외하면 중국인임에 반해 브라질은 중국 이민자 수가 많지 않아 중국인에 의한 소비는 미미한 편이나, 일본계 이민자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 일본계 이민자들은 브라질 내에서 농작물을 다수 개발·개량하면서 농업계(청과, 채소) 유통 전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 내의 일본식품 붐이 브라질로 전파되던 시기에, 이에 맞추어 일본 식품업체와 수입업체는 주부, 젊은층, 여성 등을 우선 타겟으로 하고 판촉전을 펼치면서 일본식품이 점차 브라질 내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 브라질 내에서 글루텐 프리 제품, 통곡물 제품 등 건강식 및 웰빙 지향적인 소비가 증대되고 있어 밀가루 대신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에도 지속 또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한국은 쌀이 주식이고 한국 내에서도 건강자연식 식이 트렌드로 인해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 주스류는 브라질이 수입하는 품목 중 3위이며, 한국이 브라질로 수출하는 식품 중에서도 주요 품목인만큼 이에 대한 수요가 높다.
 - 현재 한국식품 중에서도 포도맛 음료의 경우 브라질인들의 수요가 높은 편인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차류는 주스류만큼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며 특히 최근 커피의 카페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차 소비가 더욱 늘고 있다.

1) 브라질 식품소매점

- 브라질 식품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한국식품은 과일음료(포도·딸기 맛) 및 어린이 음료로 유사제품에 비해 용량 대비 가격이 다소 높으며, 그 외에는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없다.
 - 이러한 이유는 한국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짧은 식품 유통기한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브라질 식품소매점 내 한국식품 및 유사제품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과일음료 중 량: 235ml 원산지: 한국 가 격: 4.55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nosso Coco 중 량: 200ml 원산지: 브라질 가 격: 3.89BRL
	판매처: 자파리 제품명: ○○○음료 중 량: 205ml 원산지: 한국 가 격: 5.50BRL		판매처: 빵데아수카르 제품명: Ducoco 중 량: 1L 원산지: 브라질 가 격: 8.15B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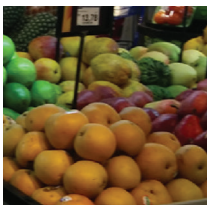

* 환율 정보(2016) 1헤알(BRL): 334.82원

- 아울러 유통기한 외에도 한국과 브라질 간 원거리 수송 시 발생하는 물리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다.
 - 선박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적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기름이 산패되면서 제품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냉장 컨테이너로 운송해야 하고,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 그 외에도 브라질의 복잡한 규정을 맞추지 못하여 통관이 거부되어 수출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2) 한국 및 일본 식품 소매점

- 한국식품점과 일본식품점은 국내 식품점과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한국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식품은 포도·딸기 맛 음료, 어린이 음료 등의 주스류와 초코파이 등의 과자류이다.
 - 주스류는 한국식품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으로, 특히 포도·딸기맛 음료의 경우 젊은 소비자들이 보드카에 혼입하여 마시기도 한다.
- 단맛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의 식습관으로 인하여 초콜릿 소비가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부활절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관습이 있어 이 시기의 초콜릿 판매량이 많은 편이다.
 - 그러나 초코파이의 경우 유사한 현지상품이 많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한국 초코파이로 구매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신선 농산물은 한국 채소 및 과일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이 일본계 이민자들을 통해 이미 현지에서 개량 및 재배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제품의 경쟁력은 낮다.
 - 최근 배 검역 문제가 타결되었으나, 이미 우리나라와 동일한 품종의 브라질 또는 칠레산 배가 판매되고 있어 한국산 배의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산 배는 브라질산 배에 비해 가격이 절반 가까이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 신선농산물의 진출을 고려한다면 브라질과 한국의 계절이 반대인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산 배 및 칠레산 배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히로따 제품명: 배 원산지: 브라질 가 격: 13.78BRL		판매처: 롯데마트 제품명: 배 원산지: 칠레 가 격: 7BRL

* 환율 정보(2016) 1헤알(BRL): 334.82원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한국 및 일본 식품소매점 내 한국식품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햄통조림 중 량: 340g 가 격: 43BRL		판매처: 히로타 제품명: ○○○음료 중 량: 235ml 가 격: 7.99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쌈장 중 량: 1kg 가 격: 31BRL		판매처: 히로타 제품명: ○○○초코파이 중 량: 234g 가 격: 12.99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인삼차 중 량: 300g 가 격: 80BRL		판매처: 히로타 제품명: ○○과자 중 량: 75g 가 격: 6.99BRL
	판매처: 마루카이 제품명: ○○과일음료 용 량: 235ml 가 격: 4BRL		판매처: 오뚜기 슈퍼 제품명: ○간장 용 량: 500ml 가 격: 18BRL
	판매처: 카사부에노 제품명: ○○○소주 중 량: 360ml 가 격: 16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라면 중 량: 100g 가 격: 5.50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카레 중 량: 200g 가 격: 9.50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컵라면 중 량: 62g 가 격: 5.60BRL
	판매처: 코리아마트 제품명: ○○소스 중 량: 300g 가 격: 15.50BRL		판매처: 히로타 제품명: ○○초코과자 중 량: 50g 가 격: 8.48BRL

* 환율 정보(2016) 1헤알(BRL): 334.82원

나. 판매확대 방안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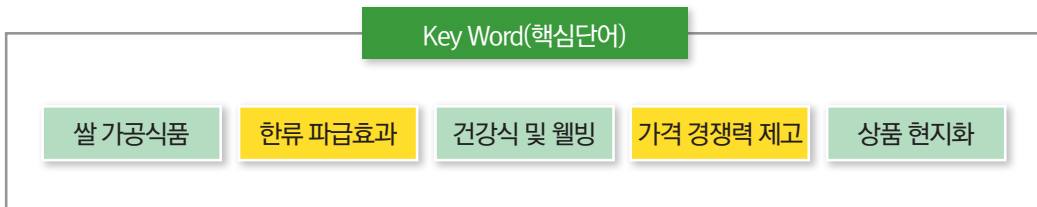
1) SWOT 분석을 통한 최적 전략

□ SWOT

기회(Opportunity)	강점(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최대 시장(인구 2억 명) · 중남미 최대의 농식품 수입 국가 · 주변국 한류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가능성 · 건강식 및 웰빙 소비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에 비해 품질 및 안전성 우위 · 쌀이 주식으로, 쌀 가공식품에 경쟁력 · 일본식품과 차별화된 맛과 향 · 건강학적·영양학적 우수 * WHO: 한국식품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모범식 US. Health: 김치를 세계5대 건강식으로 선정
위협(Threat)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코스트 등 높은 진입장벽과 역내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팽배(남미공동시장) * 세계시장과의 자유무역 체결 : 7% · 빈번한 검역제도 변경 · 적도횡단에 따른 유통기한 문제 등 물리적 수송 한계 · 물류 인프라 시설 낙후로 비싼 물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 홍보 등 마케팅 능력 부족 · 가격 경쟁력 취약 · 브라질 식문화에서는 자극적이고 매운 맛

□ 최적 전략

WT전략 (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장벽이 높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므로 보다 현지화된 맛 개발 필요 ·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원가 절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ST전략 (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은 수송 시 냉장온도 관리가 어려워 수출이 어려운데, 쌀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수출 품목 한계 극복 · 검역제도 등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경쟁력 높은 식품을 활용하여 장기적 현지화 전략 마련
SO전략 (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인 미국의 한류 영향으로 브라질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기에 한국산 제품의 안전성 및 차별화된 맛·향을 최대 활용 · 건강식 및 웰빙 지향 식문화에 적합한 쌀 가공식품 수출 전략 제시
WO전략 (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한국식품 홍보 전략을 통해 중남미 최대시장을 적절히 활용 · 한국식품의 건강 자연식 이미지를 개발·강화함으로써 웰빙 소비트렌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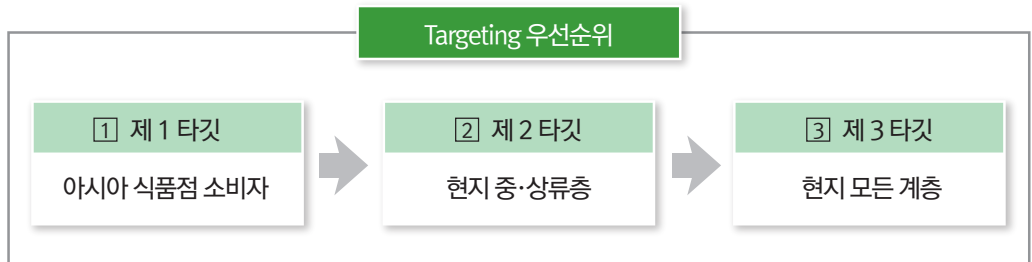


8) 상기에 제시된 판매확대 방안은 현지 수입업체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방안으로 국가의 지역적 특성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님

» 판매확대를 위한 제언



2) Targeting



① 제 1타겟 : 아시아 식품점 소비자

- 아시아 식품, 특히 한국식품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본·중국 등 아시아 식품점을 타겟으로 하고, 이곳에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판매를 해야 한다.
 - 아시아 식품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식품에 대해 관심이 높고 거부감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여 한국식품을 홍보해야 한다.
 - 특히 일본계 유통채널은 이미 브라질 전반에 걸쳐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식품을 유통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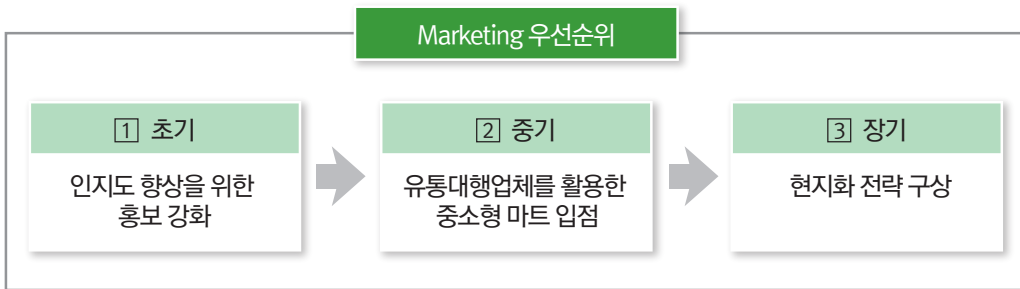
② 제 2타겟 : 현지 중·상류층

- 한국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기적으로는 브라질 중·상류층을 타겟으로 한국식품 판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한국식품은 브라질 식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 가격경쟁력 면에서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현지 식품점 중에서는 구매력을 가진 중·상류층을 타겟으로 하여야 한다.
 - 오랜 이민 역사와 비즈니스 매너로 인해 브라질인은 일본인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동양인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국식품 전파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제 3타깃 : 현지 모든 계층

- 초·중기 판매 확대 및 정부 지원 원가절감을 통해 한국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는 브라질의 중·상류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소비자에게까지 판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소득격차가 큰 브라질에서 전 계층으로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운송비 절감이나 현지 생산 등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3) Marketing 제언



1 초기 :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브라질 식품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주기적인 광고, 시식행사 등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현지인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식품을 접해보지 못하여 맛이나 먹는 방법 등을 몰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식과 같은 판촉행사를 통해 한국식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아직 한류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주변 남미국가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이 브라질로도 전파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흥미가 식품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 일본인들이 형성한 동양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식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 예를 들어 한국은 쌀이 주식이므로 쌀 가공식품의 개발·판매·홍보를 통해 한국식품이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중기 : 유통대행업체를 활용한 중소형 마트 입점

- 브라질은 브라질코스트, 카르텔 등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나, 반대로 이를 극복하는 경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초기에 직접 지점 또는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어려우므로 유통 대행업체를 통한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또한 대형마트는 시식비용, 판매비, 광고비, 매대사용료, 입점비, 행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높고 요구조건이 많아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구조건이 적은 중소형 마트에 우선 입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장기: 현지화 전략 구상

- 물리적인 거리나 까다로운 통관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출만으로는 시장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생산 등 현지화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관세, 세금과 같은 브라질코스트와 보호무역주의 기초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출보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투자·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사례) 일본의 경우 對브라질로 채소 종자 수출과 현지 직접생산 방식을 통해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對일본 채소 종자 수입액은 590만 6,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수입액도 2014~2016년에 연평균성장률이 약 30%로 가장 높았다.
 - 다만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시 노동법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법이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라는 대전제 아래 노동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실제로 노동 법원은 각종 소송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많이 내리므로 노무관리에 실패할 경우 노동소송에 휘말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이 주로 겪는 고충은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것이다.
- * 법정 근로 시간: 하루 8시간(일주일 44시간),
 법정 연장 시간: 하루 2시간
- 더 나아가 신흥시장인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중남미 전역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남미지역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제외하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브라질 시장은 남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변국으로 진출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 (사례) 식품의 맛도 현지인의 기호를 더욱 반영해야 하는데 현지산 라면 제품의 경우 주로 치킨이나 비프향을 첨가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 라면도 브라질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너무 자극적이거나 맵지 않게 조절되어야 한다. 또한 현지산 라면 제품들은 주로 중량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Part III

| 수입통관 제도 |

01. 수입통관

02. 동식물 검역

03. 라벨링

04. 진입장벽 및 통관 거부사례





01 | 수입통관

- 브라질은 남미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인구 2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지만, 수입통관 환경은 높은 세율과 관료주의, 그리고 수입 사전허가 등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를 가진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 그 외에도 지리적으로 먼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국제운송(해상운송 30일 이상, 항공 2일 이상), 수입장벽(복잡한 수입 절차, 수입 규제 항목), 인프라 부족(공항·항만시설 낙후, 높은 자국 내 운송비용), 파업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 다만 룰라 정부부터 이어진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테메르 정부에 의해 시장친화적인 경제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통관 절차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한 후 NCM코드(MERCOSUR 공동상품코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이어서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신고 전 준비단계를 거친다. 이후 수입신고서 등록, 선적 절차, 제출서류 완비를 통한 수입신고를 하며,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화물을 운송하면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가 끝나게 된다.
 -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통관이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상이한 통관 조건을 잘 파악하여 브라질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수입통관 절차



가. 사전수입신고

- 브라질 ANVISA 및 MAPA에서는 1959년 10월 5일자 관보를 통해 농축산물, 의약품, 화학품, 식품 등 240여개 품목의 수입 시 사전 수입허가서(License for Import)를 받도록 발표하였다.
 - MAPA 관할 품목으로는 동식물, 야채 및 과일, 커피, 곡물, 제분공업용 제품, 씨앗, 식용 오일, 음료, 과일 등이 포함된다.
- 해외 수입을 원하는 업체는 통상산업개발부(MDIC)에서 운영하는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에 업체 등록을 해야 하며, 수입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이 불가하다.
- 수입업체는 SISCOMEX 수입업체 등록 후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자신의 수입물품이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입품목의 사양, HS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수출자는 제품의 HS Code를 명기하여 Proforma-Invoice를 발행하고, 수입자는 제공된 HS Code를 토대로 적합한 브라질 세율 분류번호를 확인한다.
- 수입 규제 규정이 SISCOMEX에 등록된 수입업체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허가 단계에서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한 통관 지연이 발생한다.
- o 한편 사전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의 등록기관이나 세관 내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 o 수출자는 선적서류 준비 - C/I, P/L, 원산지 증명서, 성분분석 증명서, B/L 등 서류 확인을 위해 수입자에 사본을 송부한다.
 - 수출자는 모든 원본 선적서류에 실서명을 한 후 사본을 수출자에게 송부한다.
- * 브라질 세관법상 도장이나 전자서명 불허
- o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서 메르코수르가 사용하는 HS Code인 공동상품코드(NCM)를 따르므로 이에 맞추어 상품을 분류해야 한다.
 -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사이트(www.mdic.gov.br)에서 브라질 관세코드(TEC: Tarifa Externa Comum) 중 해당되는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 수입통관사들은 보통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모든 비용을 자동 계산하기 때문에 적절한 코드 분류를 위해서는 통관사나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기재 오류로 인해 관세코드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오납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관세코드를 분류하는데 정확도를 기해야 할 것이다.

나. 수입신고 절차

1) 수입신고

- o 수입신고는 화물 도착 직후, 혹은 보세창고로 운송한 후 진행되며, 무역자동화 시스템(SICOMEX)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수입업체 또는 통관업체는 화물 도착 전까지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선적한 후에 수입허가가 승인된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CIF금액의 30%, 또는 최소 500BRL(221달러), 최대 5,000BRL(2,216달러) 정도이다.
- o 또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제품세(IFI), SISCOMEX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비용 관련 세금의 납부와 화물검사 및 화주 확인이 완료되면 세관에서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해준다.

- 상업송장이 통관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 서류 미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 시는 1~5% 내의 관세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이며, 의약품과 농수산물 등 화물의 성격에 따라 기타 서류 및 인허가가 필요하기도 하다. 정확한 원산지과 가격이 기재된 상업송장이 통상 5부 필요하고, 서류는 영어, 혹은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야 한다.

2) 수출 관련 구비서류

① Proforma Invoice

- 수출입자 간 모든 협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즉 Proforma Invoice 번호, 수출입자 상호 및 주소, 원산지 및 도착지 국가와 항구, 대금결제 조항(기간 및 수출자 은행 정보), 상품 인식 번호, reference, 상품 사양, 원산지 HS code, 주문 수량, 제품 Unit 가격과 Total 가격(협의를 통화 수단으로 표기), Incoterms(FOB/CFR 등), 제조사 상호 및 주소,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서명 등이다.

② Commercial Invoice

- Proforma Invoice 이외에 실제로 선적된 상품의 수량 및 가격을 명시한다.
- 표시사항: 선적일, 선박명, 상품 사양 설명(포어), 각 제품의 브라질 세율 분류 코드(NCM), Total Net Weight, Total Gross Weight, 실서명을 한다.

③ Packing List

- Commercial Invoice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포장 상태를 명기한다,
- 표시사항은 상품 일련번호 및 reference, Commercial Invoice상 네고된 수량(box, kg, unit, pallet...), 각 단위 packing당 포함 수량(Qnty in Box, Qnty in pallet), 각 제품의 Net Weight, Gross Weight, CBM 등, Total Net Weight, Total Gross Weight, Total 정보(총 Net Weight, Gross Weight, CBM 정보는 B/L과 일치해야 함)이다.

④ B/L

- B/L 작성 양식은 국제표준에 준하여, 브라질 Local 운송주선업자 상호 및 주소, 컨테이너 정보(Qnty, 컨테이너 유형 및 넘버), C/I, P/L 정보와 일치하는 총수량 정보(볼륨, net & gross weight, cbm), 인보이스 번호, 컨테이너에 적입된 제품 종류(식품, 음료 등), 브라질 세율 분류 코드(NCM) 최초 4자리, 운임 표기(Collect or Prepaid)이다.

* B/L상 Freight & Charges란에 도착지 지불(Collect)의 경우 후 지불 금액 및 B/L상 명기된 모든 가격은 수입관세 산출 시 계산 base에 포함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품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 각 국가 관할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기준에 준하며, 한국의 경우 상공회의소(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에서 발행한다.

⑥ 제품 성분분석 증명서(Certification of Analysis)

- 제품 원산지 공인위생검역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발급하고 소비하기에 적합함이 증명된 내용을 포함한다.
- 주요 내용은 수출자 및 제조사 상호/주소, 제품 정보(인식번호, 이름 및 reference), Lot No,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성분 함량%, 주문 수량, 성분분석 측정기준(필요시), FOB or CFR, 발행기관의 서명이다.
- * 브라질 농축산부(MAPA)의 통제를 받는 상품은 브라질 법령 IN55를 준수해야 함
- ** IN55 : 원산지 증명서 및 성분분석 증명서는 원산지에서 공인된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브라질 농축산부(MAPA)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다. 물품검사

- 브라질에 도착한(항구 정박 후) 컨테이너는 보세구역으로 이동·보관 후 농축산부(MAPA)의 위생검역국(ANVISA) 검사를 위해 적출된다.
 - MAPA와 ANVISA 검시관들이 성분 분석 및 선적 서류와 현물 대조(pallet 개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한다.
 - 검시관들은 샘플을 채취하여 세관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 검역 통과 후 수화물의 사전수입신청이 승인되고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들어간다.
 - * 검역 과정 중 문제 발견 시는 세관의 지시에 따라 재승인 절차를 밟음
- 사전수입승인 후 수입통관 절차에 들어가고, 채널 배정 대기, 채널 배정 후 수입통관 완료 시까지 대기한 후 화물 상차 및 목적지까지 내륙운송 한다.
- 무역자동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화물검사를 지시하는데, 녹색, 황색, 적색, 회색 4채널로 구분되며, 각 색깔별로 화물검사 지시 내용이 구분된다.
 - 녹색은 자동통관으로서 심사가 생략되어 1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 황색은 서류심사, 적색은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회색은 서류·화물의 정밀검사 및 수입회사 조사를 의미한다.
 -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업체가 연방세무국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의 심사·검사가 완료되면 신고가 수리되어 최종적으로 물품이 반출된다.

라. 관세납부

-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은 수입세(II), 공업제품세(IPI), 주유통세(ICMS) 등 3가지가 있다.
 - 수입세는 수입품에만 부과되고 세율은 15~20%, 공업제품세(IPI)는 수입 및 현지 제품에도 부과되며 세율은 10~15%, 주유통세(ICMS)도 수입 및 현지 제품에도 부과되며 세율은 18% 수준이다.
 - 그 외 2004년 5월 1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사회보장세(PIS/COFINS)가 부과되고 있다.
- 수입관세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가입 이후 대외무역공동관세(TEC)를 사용한다.
 - 수입세는 수입품에만 부과되고 세율은 15~20%이다. 공업제품세는 수입 및 현지 제품에도 부과되며 세율은 10~15%이다. 주유통세도 수입 및 현지 제품에도 부과되며 세율은 18% 수준이다.
 - 그 외 공업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세는 부가가치세 원칙을 따른다. 행정단위에 따라 수입관세와 공업제품세, 사회보장세는 연방세로 분류되어 연방법에 따라 과세되며, 유통세는 주(州)세로 주마다 세율이 달리 책정된다.
 - 수입품에 대해 연방세와 주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며, 조세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브라질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러한 조세시스템으로 인해 브라질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실제로 지불되는 비용이 두 배가 되므로 외국 회사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 관세(수입세)와 그 밖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정된 수입업체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지불된다. 반면 주세인 ICMS(유통세)는 별도의 주 재정국에 의해 바코드가 부착된 청구서가 발급되어 지불하게 된다.
-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s)이며, 일부 통신제품을 제외하고는 CIF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 2012년 브라질의 농산품 평균 관세는 7.2%로, 평균 최혜국대우관세(MFN tariff) 11.7%보다 낮은 수준이다. 평균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농산품으로는 유제품(18.6%), 설탕 및 제과(16.7%), 음료, 증류주, 담배(16.5%), 커피 및 차(13.7%)가 있다.
- 높은 관세제도는 수출과 투자 진출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특히 완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 기본관세율이 최고 35%이고, 일반 소비재의 관세는 평균 15% 수준이다.
 - 그 외 같은 성격의 세금이 연방세나 주세, 시세로 부과되는 등 세금 종류가 너무 많고 세무 체계가 복잡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관세특혜 제도로는 관세환급 및 감면(Drawback)이 있는데,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내국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주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또한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주정부 관세특혜 제도(FUMDAP)를 통해서도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2013년 6월 기준으로 수입세(II), 공업제품세, 주유통세 등의 기본 세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 창고세: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가격의 0.65%(15일 기준)
 - 터미널 사용세: 144~310달러(선사별,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400~700BRL로 차이가 있음)
 - 상해운세(AFRMM: Additional tax on Freights for the Renewal of the Merchant Marine)
 - 상해운송비의 25%(항공운송은 상해운세 면제): 브라질에만 있는 간접세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국제 해운 요금에 대해 25% 부과
 - 세관사용인조합 기여금: 144~310달러(400~700BRL)
 - * 수시 변동
 - SISCOMEX 사용료: 13~22달러(30~50BRL)/선하증권
 - 화물운송비: 산투스에서 상파울로까지 길이 20'(20피트, 6.1미터)나 40'(40피트, 12.19미터)짜리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532달러(1,200BRL)
 - 통관수수료(통관사에게 지불, 수입품목에 따라 상이함): 약 111~443달러(500~1,000BRL)

02 | 동식물 검역

가. 동물검역

- 동물성 식품의 경우 DIPOA(Department of Animal Origin Products Inspection Service)에서 검역 및 표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소, 양, 돼지, 염소, 말, 수렵육, 기금류, 유제품, 계란, 해산물, 꿀 및 기타 동물 기원 성분의 50% 이상을 함유한 제품이 있다.

나. 식물검역

□ 브라질의 식물검역

- 브라질이 식물 기원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 위생검역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브라질 내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 소비 또는 가공을 위한 식물 성분(과일 및 채소)과 식물 번식 성분(종자 및 묘종)의 수입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에 따라 2005년 3월 16일 nº 06의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 수입승인 식물제품(PVIA) 목록에 포함된 식물 성분만이 수입되며, PVI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 식물 종류, 식물 부분, 사용 목적, 원산지 등 구체적인 식물위생 검역 요건을 브라질 공식 신문(DOU)에 공표. 그러나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장애물.
 - 식물 번식 성분(종자 및 묘종) 수입의 경우는 수입허가(Import License)도 필요하다.
- 한편 1997년 8월 12일~2005년 7월 16일 기간동안 식물수입의 경우 최소 한번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입이 동일한 원산지로부터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발생하고 브라질로의 검역해충 유입 기록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 해당 제품의 수입, 식물 부분, 사용 목적, 원산지를 증명하게 되면 수입승인 식물제품(PVIA)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 해당 제품의 수입은 재무국의 연방수입사무국(Secretariat of Federal Revenue of the Ministry of Finance, SRF)에 의해 발행되는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DI), 또는 MAPA에 의해 발행되는 수입허가(Dispatch Authorization)에 의해 증명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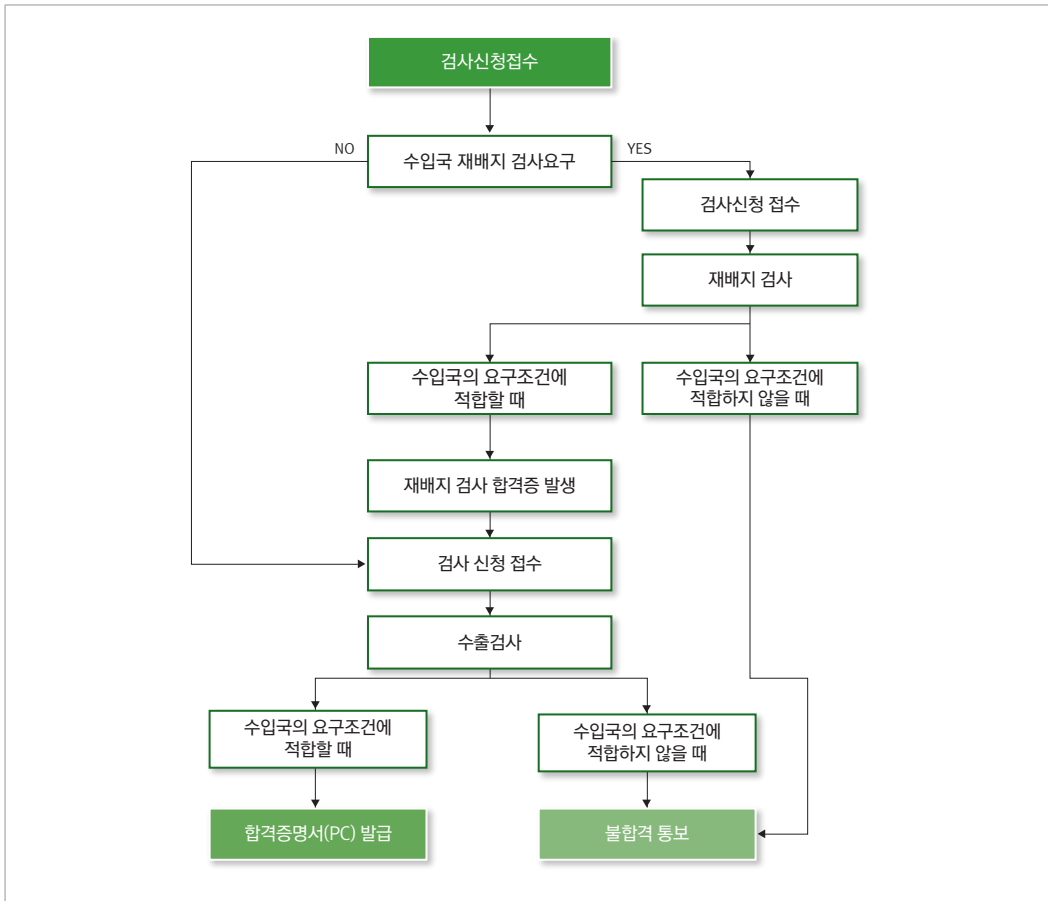
» 식물위생 검역 증명서(예시)

15 - MODELO DE CERTIFICADO FITOSSANITÁRIO		
Anexo VII - CERTIFICADO FITOSSANITÁRIO N° PHYTOSANITARY CERTIFICATE N°		
De: Organização Nacional de Proteção Fitossanitária do BRASIL From: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BRAZIL Para: Organização (ões) Nacional (is) de Proteção Fitossanitária de _____ To: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s) of _____		
Descrição do Envio / Description of Consignment		
1. Nome e endereço do exportador <i>Name and address of exporter</i>	2. Nome e endereço declarado do importador <i>Declared name and address of importer</i>	
3. Meio de transporte declarado <i>Declared means of transport</i>	4. Lugar de origem <i>Place of origin</i>	5. Ponto de entrada <i>Place of entry</i>
6. Nome do produto, número e descrição da mercadoria e marcas distintivas. <i>Name of product, 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and distinguishing marks</i>	7. Nome botânico <i>Botanical name</i>	8. Quantidade declarada <i>Declared quantity</i>
9. Pelo presente, certifica-se que as plantas, produtos vegetais e outros artigos regulamentados descritos aqui foram inspecionados e/ou analisados de acordo com os procedimentos oficiais adequados e são considerados livres de pragas quarentenárias especificadas pela parte contratante importadora e que cumprem os requisitos fitossanitários exigidos por esta, incluindo os relativos às pragas não-quarentenárias regulamentadas. <i>This is to certify that the plants, part of plants or products or other regulated articles described herein have been inspected and/or tested according to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o conform with current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ose 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i>		
Declaração Adicional / Additional Declaration		
Tratamento de Desinfestação ou Desinfecção / Disinfestations or Disinfection Treatment		
10. Tratamento / <i>Treatment</i>	11. Produto químico (ingrediente ativo) <i>Chemical (active ingredient)</i>	
12. Concentração <i>Concentration</i>	13. Duração e Temperatura <i>Duration and Temperature</i>	14. Data <i>Date</i>
Dados dos Responsáveis / Responsible Information		
15. Selo da organização <i>Stamp of organization</i>	16. Lugar de expedição <i>Place of issue</i>	17. Data <i>Date</i>
18. Nome do oficial autorizado <i>Name of authorized certification official</i>		
19. Assinatura do oficial autorizado <i>Signature of authorized certification official</i>	20. N° de registro <i>Number of register</i>	

출처: ABRAFIT

□ 한국의 식물검역

» 수출 식물검역 절차



출처 : 농축산검역본부(www.qia.go.kr)

1) 수출 가능 품목 파악

- 현재 배 생과실과 채소 종자 9품목(상추,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 파, 양파, 수박, 메론)은 수출 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현재 수출 가능했던 채소 종자 8종(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케일(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방울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gemmifera), 콜리플라워(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콜라비(Brassica oleracea var. gongylodes),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무(Raphanus sativus) 종자)는 Tobacco rattle virus*가 한국의 검역 병해충 목록에서 삭제되어 수출 불가하다.

* 식물검역증명서(PC) 부기사항에 “공식적인 검역 병해충 목록에 의거, Tobaccorattle virus와 Tomato black ring virus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은 검역 병해충이다”를 기재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2) 검역 타결 절차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8단계 세부기준

-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검역당국별 세부적인 단계가 다르나, 한국의 검역당국인 농축산검역본부는 8개의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 검역 타결 진행수준을 평가한다. ■ 한국 세부기준

국제기준 1단계 < 착수(Invitation) >
① 수입위험분석의 접수(Filing of request of IRA) ⁹⁾ - 수출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관심품목의 공식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관련 병해충, 생태 관련 정보 제공 ② 수입위험분석의 착수(Initiation of IRA) - 상대국 제공 자료 검토 및 관련 병해충 관련 문헌 탐색에 의한 IRA 착수 - 일반 수입위험분석과 단순 수입위험분석 결정
국제기준 2단계 < 병해충 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 >
③ 예비위험평가(Preliminary IRA ; Pest categorization) - 포괄적인 병해충 목록 작성 - 병해충의 카테고리제이션 및 병해충 위험 평가가 필요한 병해충 선별 ④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 - 각 병해충별 도입·정착·확산 위험도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위험평가 - 우려 병해충 및 유입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구하는 병해충 선별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국제기준 3단계 < 병해충 위험관리(Pest Risk Management) >
⑤ 위험관리방안 작성(Pest Risk Management) - 수출국이 제안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식물검역심의회에서 심의 -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수출국과 협의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⑥ 수입금지 제외기준 초안 작성(Draft of Import Plant Quarantine Requirement) ⑦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Post of the Proposed Rule) ⑧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Notification and Enforcement)

3)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 요령¹⁰⁾

-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라 한다)와 브라질의 식물위생부(이하 "DSV(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라 한다)이다.
- 수출작업장 등록은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을 위하여 과수원을 등록하고자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과수원 등록신청서(한국산 배 생과실이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서식 3)'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 IRA(Import Risk Analysis) : 수입물위험분석

10) 브라질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배 생과실(2017년 2월 20일부터 가능)뿐이며, 채소 종자 9품목(상추,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 파, 양파, 수박, 메론)은 수출 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이 가능한 '배' 품목을 예시로 하여 식물 검역을 설명하기로 한다.

- 수출과수원 등록을 신청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과수원 등록대장(한국산 배 생과실이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서식 4)’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과수원 승인 결과 및 부여한 등록번호를 통보하고,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등록대장(한국산 배 생과실이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서식 6)’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QIA 본부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발급
 - QIA 식물검역관은 브라질의 검역병해충 부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 생과실에 대한 브라질의 검역 병해충 목록

해충 12종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Tetranychus truncatus (뽕나무응애), Criso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병 5종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검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abiniae (European pear rust)

-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하며,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동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QI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
 (국문 번역: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 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

- QI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로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로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QIA 식물검역관은 검역 병해충 검출사항을 본부에 알리고, QIA는 동 사항을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검역 병해충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브라질로 수출될 수 없다. 해당 수출과수원산 배 생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QI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수출과수원명, 컨테이너 번호,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병해충 분류·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로트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 축산검역 본부고시)에 따른다.

03 | 라벨링

가. 라벨링 개요

- 브라질의 국립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 인증제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INMETRO의 사이트 (www.inmetro.gov.br)에 접속한다.
 - 수입물품이 강제인증(Certificação Compulsória)과 자율/임의인증(Certificação Voluntária) 중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판별하고, 강제인증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인증서제품인증기관(OCP)에 접촉하여 기관에 따라 인증서 취득을 신청한다.
 - INMETRO는 국내 및 수입제품(공산품 또는 식품)들이 라벨의 명세, 브라질 표준, 포장재의 안정성 등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며 그 외 포장과 라벨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농축산부(MAPA) 또는 위생검역국(ANVISA)에 의해 정의된다.
 - 대부분의 포장 및 가공제품은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발표된 특정한 PIQ(Product Identity and Quality Standard)를 지니고 있다. PIQ는 국내와 수입식품의 라벨링을 결정하는 모든 규정과 요구사항들을 설정한다.
- PIQ 사양에 따르지 않는 식품이라면 식품첨가제의 사용이나 일반적인 라벨링 그리고 소비자보호코드 등 다른 규정들이라도 준수해야 한다.
 - 소비자보호코드는 국내 식품과 수입식품, 음료들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제품정보를 포르투갈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브라질로 수입된 모든 제품은 라벨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는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만일 포장에 다른 국가 언어로 쓰여 있다면, 브라질 법은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접착스티커를 그 위에 사용해서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이러한 스티커는 원산지에서 선적 전이나 브라질에 들어온 다음에 붙일 수 있지만 상용화하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나. 라벨링 규정

1) 기본적인 식품표시 사항

- 수출 시 수출업체는 수입업체가 송부한 상품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브라질 법령에 의거해서 포르투갈어로 된 제품성분 분석표인 라벨을 제작해 각 제품에 부착하고, 제품의 정확한 사양 및 세율 분류와 제품 유통을 위한 적합한 포장 규격화를 실시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제품의 규격표준 제도는 국립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에서 관할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표준규격을 획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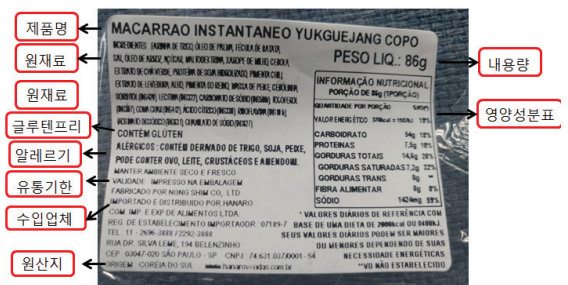
» 표준규격 획득 절차



- o 브라질 정부는 모든 동물 관련 물품에 관해서 사전허가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업체, 혹은 중개업체를 통한 라벨링 허용은 필수적이다.
 - ANVISA가 규정하는 식품에 첨부하는 라벨에 관한 일반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표시 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공식품 라벨 표시 목록

- ㉠ 제품명
- ㉡ 원재료 일람
- ㉢ 내용량(중량)
- ㉣ 원산지
-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명칭 및 주소
- ㉥ 로트(Lot) 식별: 회사코드, 제조일 또는 사용기한
 - 제조일자(반드시 겉 포장용기에 표기)
 - 유통기한(생산자로부터 결정된 품질수명)
- ㉦ 유통(소비)기한
- ㉧ 특별히 필요한 취급사항
- ㉨ 조리법이나 사용법의 설명(필요할 경우)
- ㉩ 특별 보관방법(필요할 경우)



2) 특수한 식품 표시사항

- o 특수한 식품 표시사항에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유전자 변형 원료가 전체 원료의 1%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의무 표시해야 하며, 2003년 규정에 따라 심벌 마크 및 기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예를 들면 'Contem XXX transgenico(유전자 변형한 XXX원료를 포함)' 등을 표시해야 하며 영유아 식품에는 특별한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 라벨링에 대한 규정들은 변경될 수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3) 전면 표시사항

- o 전면에는 기술적 명칭(TECHNICAL NAME(MAPA/ANVISA에 의하면), 브랜드와 중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4) 측면 표시사항

- o 측면에는 브라질로 수입되는 식품의 측면패널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식품 측면패널 라벨링 요구사항
- 식품 원재료 목록
- 원산지
- 생산자 연락처와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 생산일자와 제품 유효기간
- 저장방법과 준비지침
- 글루텐 포함 유무 표기
- 영양정보

5) 영양분석표

- o 수입업체는 선적 전에 브라질 법령에 준하여 수입할 제품의 성분 및 영양분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특히 브라질 원료제품검사국(DIPOA)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족시킨 포르투갈어 라벨을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기재된 라벨링은 브라질 수입업체, 혹은 중개인에 의해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 라벨은 제품의 포장상자에도 세관검사 시 편의를 위해 부착해야 하는데, 특히 제품의 개별 포장에 규격화된 제품의 성분분석표를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 법령에 의거하여 제품의 성분분석증명서(COA: Certification of Analysis)를 발급하고 모든 선적서류들처럼 수출업체의 자필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 ① 표준 라벨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상품명, 함량(kg, L, MI), 제조사, 원산지, 수입업체,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글루텐(Gluten) 포함 여부, 기타 권장소비방법(냉장보관, 복용 전 흔들기 등), 필요할 경우 조리사항 포함, 브라질 법령에 의거한 제품의 영양분석표 등이다.
 - ② 2003년 ANVISA 법령에는 라벨에 필요한 식품의 용량표시에 관한 기술적 규칙과 포장된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 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표시 의무사항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량,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식물성유, 나트륨에 대한 정보이다.
 - ③ 가공식품에 글루텐의 함유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는 점이 브라질에서는 특이하다. 이것은 2003년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밀 관련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의 장내 흡수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셀리악'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 규정으로, 모든 가공식품에 필수 적용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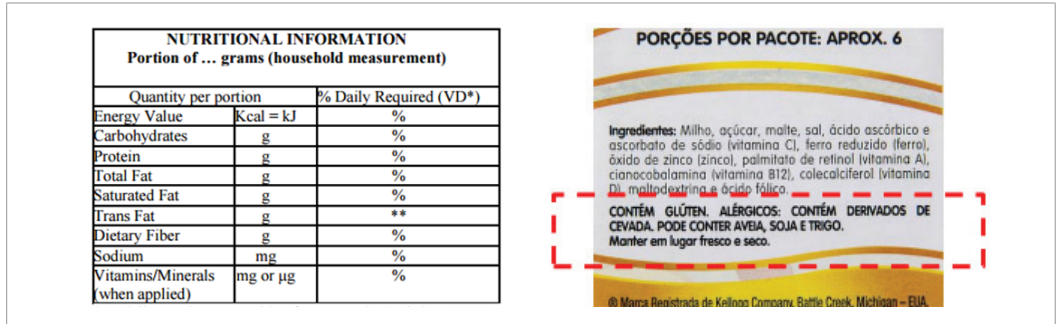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실제 식품을 확인해보면 ‘CONTÉM GLÚTEN’(글루텐 포함) 또는 ‘NÃO CONTÉM GLÚTEN’(글루텐 미포함)이라는 표지가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다.

» 영양분석표 및 글루텐 표시 예시



출처: USDA

6) 알레르기 표시

- o 브라질 보건부 국가위생검역국(ANVISA)은 2016년 7월 3일부터 음식물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식품 정보표시 규제를 강화하였다. 새 규제 적용일로부터 1년 정도의 시험 및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 생산자들은 견과류, 갑각류 및 유제품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성분을 제품에 표기해야 유통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o ANVISA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7가지 식품에 대해 식품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를 2016년 7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17개 식품에는 밀류(호밀·보리·귀리 및 관련 제품),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모든 포유동물의 우유), 아몬드, 도토리, 캐슈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리언 너트, Pekan, 피스타치오, 잣, 밤이 포함된다.
 - 현재 브라질에는 6살 이하의 6~8%의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성분의 정확한 표기 필요성이 대두된다.
 - 브라질 정부는 이와 같은 식품성분표시 규제 강화를 통해 브라질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o 이번 식품성분 표시 강화제도에 대한 정확한 적용일 및 시기에 관한 정보는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65%의 식품협회에 등록된 상품이 새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새 규정의 공식 발효 후에는 규정을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유통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 유전자 변형 표시

- GMO 식품의 표시제도를 관장하는 부서는 ANVISA로, GMO 사용 식품 생산 및 유통단계를 감독하고 있다.
- GMO 표시제도는 GMO 개발, 생산, 수입구분 없이 GMO 제품에 대한 총체적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Decree no. 2658/2003 및 Decree 4680/2003).
 - 정부가 발행한 GMO 인증표시를 부채(삼각형으로 상징됨)하고, 성분표시 의무화, 생산품·원자재를 표시 (곡물 종류, 혹은 혼합의 경우 분리 표시)한다.
- 2008년 3월 12일자 Normative Resolution No.5는 LMO 및 파생식품에 유전자 변형 원료가 1%라도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해당 원료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포장지에 T문자를 명기해야 하며 원재료의 유전자 변형 물질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 다만 유전자 변형 물질 포함은 사람이나 동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 가공식품의 경우 1% 이상의 GMO 성분이 포함되면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한 지방정부 법원에서 1% 미만도 표시를 하도록 결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 상기 법령 이외에도 브라질 식약청의 라벨링 규정(Resolution no. 259/2002)에 의하면 GMO 제품의 종류에 따라 취급 주의사항, 개발, 생산, 수출 및 수입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Non GMO 인증제도의 경우, 정부가 종자, 파종, 수확, 상업화까지 GMO 작물을 관리한 후 최종 GMO 작물로 분류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Non GMO 분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04 | 진입장벽 및 통관 거부사례

가. 진입장벽

- 브라질 내에는 높은 세제 부담 및 물류비용, 공무원의 부패, 강성 노조 및 잦은 파업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관세장벽, 즉 '브라질 코스트'가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진출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에 직·간접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

1) 까다로운 수입통관 절차

- 1990년대 초 수입개방 이후 대외무역 절차의 현대화, 즉 서류 절차가 전산화되었지만 아직도 통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남아 있어 브라질 진출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브라질에서 수출입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수입면허(RADAR)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취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 수입신고·세금 납부 후 '채널 배정'이라는 브라질만의 특수한 통관 절차가 진행된다.
* Green 채널: 무검사통관, Yellow 채널: 서류심사, Red 채널: 서류와 현물심사
- 현물과 서류상 차이가 있거나 잘못된 신고, 혹은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서류 수정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되고 재심사까지 통관이 지연되기도 한다.
- 브라질 내 판매를 위해 ANVISA의 허가 취득이 필요한데, 제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3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ANVISA 허가는 브라질 현지업체 외에는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경우 현지법인 지사, 또는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수입품목이 제한되는 통관 거부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 통관 거부사례에서는 보복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으로 한국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거부하자 브라질은 한국식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모든 수입제품의 성분분석을 재실시하였다.

2) 비싼 물류비용

- 경제성장 대비 낙후한 물류 인프라, 예컨대 공항·항만 시스템의 비효율성, 철도 및 도로시설 낙후 등으로 인한 물류 인프라 부족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여 다양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 남미 최대의 수입항구로서 브라질 수입화물의 26% 이상을 처리하는 산토스 항구터미널 업체의 경우 10일 보관 기준으로 낮게는 화물 CIF 가격의 0.45%, 높게는 0.7%까지 보관료를 부과하는데, 기타 터미널 부대비용을 합치면 40피트 컨테이너당 1,000달러 이상의 터미널 비용이 발생한다.

3) 기타

- 수입세, 상품유통세, 사회보장세, 금융거래세, 소득세 등 세금 종류만 61가지이며 연방·주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세제 등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세율이 높다.
-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관료적 권위주의 통치 관행과 부정부패로 인하여 정부 효율성이 약화되었으며,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행정 절차 및 세제 개혁이 어렵다.
- 사업계약 집행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려 25개에 이르며, 기간도 평균 566일이 소요된다.
- 현재 노동시장은 1940년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의 노동법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기업의 노동비용 증대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고용과 해고 등 고용부문의 경직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 과거 1,000%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와 은행을 불신하므로 저축률이 17.3%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53.8%), 인도(35.45%), 러시아(28.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 브라질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서 여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반품이나 사식회개최, 광고비 등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 마진율을 비교해보면, 수입업체의 경우 25~40%, 유통업자(도매상)는 15~40%인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는 60~100%에 이른다.

나. 통관 거부사례

- 통관 거부사례 정보는 브라질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브라질 내 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공개되지 않은 몇 가지 통관 거부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식품의 통관 거부사례는 대체로 브라질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목적에 기인하는데,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인삼차, 알로에 주스, 바나나 우유, 박카스 등이 있다.
- 인삼차의 경우 브라질 내에서도 인삼 및 홍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인삼차가 건강기능성이라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통관을 위한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알로에 주스는 2014년 기준 세계 150개 국가에 수출될 정도로 시장성이 뛰어났으나 브라질에서는 포장지의 건강 기능 관련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인삼차와 마찬가지로 통관을 위해서는 의약품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증 통과에 대한 보장도 없어 실제적으로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 바나나 우유는 유지방 함량 60%로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통관을 위해 수출기업인증, MAPA 제품 등록, 수입면허 등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멸균유의 유통기한은 약 6개월 정도로 짧아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 바나나 우유 등 유제품 통관이 까다로운 이유는 브라질 정부가 자국 낙농업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낙농산업은 세계 4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이 61%나 증가할 만큼 주요 산업인데, 유제품 수입도 2015년 초부터 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브라질은 낙농산업이 1차 생산에 특화되어 있어 유럽 등의 유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 박카스는 주요 성분인 타우린을 현지 조건에 맞추어 감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NVISA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정 하에 수입이 금지되었다.
 - 그러나 수입이 아닌 현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타우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것 역시 브라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즉 자국 산업 보호조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기술이전 효과

Part IV

| 식품 위생 제도 |

01. 식품관련 인증제도

0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Brazil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01 | 식품관련 인증제도

가. 식품인증 개요

- 강제인증 총괄기관은 ANVISA이며, 해당 제품의 인증 취득 관련 법령이 관보에 게시되는 날로부터 바로 인증 취득 의무가 부과된다.
- ANVISA는 1999년 1월 26일 법령 9782호에 의거해 설립된 브라질 보건부 산하기관으로서 행정 및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위생 관련 제품의 생산, 유통, 작업환경 등에 대한 위법 및 위해 여부 관리가 주 업무이다.
 - 제품의 수출입 위생과 검역 절차 주무기관으로서, 의료장비, 제약, 식품, 화장품 등 위생 관련 전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기관이다.
 - ANVISA는 '인증'보다는 '등록'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셀(seal)이나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등록번호, 또는 관련 법령을 제품에 기입한다.
- ANVISA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 시장에 판매 유통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ANVISA 인증 취득이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NVISA 인증이 필요한 항목

의료장비, 각종 치과용품, 예방의학용품, 진단용품, 질병 치료용품, 재활 치료용품, 피임 제품, 면역용 제품 진단용 실험기구, 시약, 혈액 및 인체 장기에 적용되는 의료 관련 기타 제품, 건강 제품 및 미용용품, 농약 등 제조 제품, 식품, 음료 등

ANVISA 검사항목

- 독성물질 포함 여부
- 인화성 물질 포함 여부
- 생태계와의 조화 여부
- 쓰레기(폐기물) 여부
- 세균 감염 여부
- 인체공학적 안정성 결여 여부
- 환경과의 조화 여부
- 기계의 경우 정비 상태 및 노후 여부
- 규격 미비 여부
- 에너지 전파 상태 및 파장의 종류
- 불필요한 물질, 에너지, 파장에 대한 보호장치 여부
- 제품 설명서 판독 용이성

나. 식품인증 종류

1) ANVISA

- 의료, 미용, 식품, 농약,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
- 식품은 위생검역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SISCOMEX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 ANVISA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식품 수입과정에서 ANVISA의 역할은, 보건부의 건강검역기관이면서 동시에 농축산부(MAPA)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모든 주 정부들과 함께 협력, 브라질의 전국적 건강검역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 또한 음료와 생수, 포장, 식품첨가제, 유기적 오염물질의 오염 정도, 잔류 농약 및 수의학 의약품 등을 포함한 식품의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기본적으로 BRH(Brazil Registration Holder)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ANVISA 허가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현지법인이나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 ANVISA는 위험도에 따라 제품을 Class I, II, III, IV로 구분하고 있는데 식품의 경우 Class I에 해당하여 약식 등록절차를 거친다.
- ANVISA 인증 시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제출서류는 업체규모 증빙서류, 제조사 등록 신청서, ANVISA 등록신청비 납부 영수증 원본, 라벨 샘플, 섭취방법 샘플, ANVISA 등록이 허가하는 영업증명서이다.
 - 수입회사는 서류들을 제출한 뒤 수입하게 될 제품의 과세를 책임지는 SISCOMEX에 허가요청을 보내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ANVISA 인증 시 제출할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통 해당 서류	업체규모 증명, 제조사 등록 신청서, ANVISA 등록신청비 납부 영수증 원본, 라벨 샘플, 섭취방법 샘플, ANVISA 등록이 허가하는 기간 내 영업증명(기한 연장시)
수입업체 해당 서류	해외영업허가(등록)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제조사(수출업체)의 對브라질 수출허가 원본(공증번역 첨부)
유통업체 해당 서류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발행한 브라질 영업허가 유사제품 그룹 리스트

- 또한 ANVISA가 공식 허가한 인증대행기관과 접촉하여 공장 실사 및 각종 품질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독성여부, 세균감염여부,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ANVISA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 ANVISA 인증은 품목에 따라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으로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기 6개월 전 재신청해야 하며, 인증비용은 약 37,000~40,000BRL이다.

» ANVISA 인증

인증명	발행기관	유효기간	인증비용	특징
	ANVISA	5년 유효 (만기 6개월 전 재신청 필요)	약 37,000~40,000 BRL	품목에 따라강제가 될 수 있음

출처: KOTRA, 알기 쉬운 브라질 의료장비·의약품·화장품 인증, 2016.12.

-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작용한다.

□ 음료수

- 음료수와 증류주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입 라이선스와 등록조건이 있다.
 - 이들 제품은 경우에 따라 통제, 검역,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 음료 제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문서 요구사항이 있고, 청량음료에 대해 요구하는 특별한 문서와 특별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알코올 음료에는 용기(컨테이너)에 특수 스탬프가 필요하다.

- 특히 와인, 맥아음료, 증류수의 경우 반드시 농축산부 산하의 농업수입물감사국(DFIA)에 등록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와 성분분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 기능성 식품

-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식품이나 음료 제품은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가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ANVI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산물 수출

- 수산물의 수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국 측의 가공시설 등록, 제품의 품질표시 라벨 등록, 수출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 수출업체는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한국의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주브라질대사관을 통해 브라질 농축산부의 동물원료제품검사국(DIPOA)으로 전달해야 한다.

2) MAPA(유기농 식품)

- 2011년 1월, 유기농 식품 시장에 대한 법이 승인되면서 브라질 자체적으로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로 슈퍼마켓 및 식료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기농 식품에 ‘Organico Brasil’이라는 국가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 브라질 유기농 라벨은 감사 또는 PSG(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감사의 경우, MAPA가 소유한 8개 공인 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PSG는 생산자, 소비자, 기술자 및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기관과 PSG 모두 MAPA가 등록하고 검사해야 한다.
 - 2003년 12월에 제정된 10.831 조항에 따라 유기농 식품을 수출할 때에도 해당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 유기농 라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유기농 식품 제조 공정은 비의도적 물질로 인한 식품오염을 막기 위해 제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유기농 식품의 성분은 건강에 무해해야 하며 해당 성분의 구성비가 95%이어야 한다. 즉, 농약 및 유전자 변형 종자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③ 그 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친화적 농업, 소규모 현지 생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
 - ④ 또한 유기농 식품 생산업체는 MAPA가 공인한 인증업체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한편 함유된 유기농 성분이 95%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 표시 대신 ‘유기농 성분을 지닌 식품’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 성분이 적어도 70% 이상은 함유되어야 한다.
- 아울러 브라질 유기농 식품의 국제기준 인증을 받고 싶다면 브라질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 IBD(Instituto Biodinamico, Brazil)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IBD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인증기관인데, IBD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 체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IBD로 송부하여 현지조사도 받아야 한다.
- 참고로 브라질의 식품을 규제하는 기관은 MAPA와 ANVISA으로 각 기관의 취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식품규제 취급기관

구분	MAPA	ANVISA
취급품목	· 동물성 제품: 붉은색 육류와 그 부산물, 가금류와 부산물, 생선, 해물, 낙농 제품, 달걀 · 음료: 에너지 드링크, 대두 음료 · 과일과 야채: 말린 것, 신선한 것과 가공된 것	주로 가공 식품: 소비자 즉석 제품 혹은 MAPA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공 식품
	밀가루, 종자 등	설탕, 감미료, 미네랄 워터, 향이 첨가된 물, 첨가물과 기타 다른 원재료들
	밀, 곡물, 쌀, 대두, 목화, 담배, 땅콩 등	
	펫 사료, 먹이	
식물과 종자		

출처 : USDA(미국농림부), 'Brazil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2011.12.19. KOTRA, 'Regulatory Environment for Food and Beverage in Brazil', 2016

02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가. 식품첨가물 규정

- 위생검역국에 따르면, 식품첨가제는 의도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식품에 첨가해 그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감각적 특성을 변화시키며 영양적 기능이 없는 성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법령 50040(1961.1.24.)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11가지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염료 - 음식에 색을 더하는 물질
 - ② 향료 - 음식의 맛과 향을 부여하거나 향상시키는 물질
 - ③ 보존료 - 미생물에 의해 야기되는 식품의 변화를 예방·지연시키는 물질
 - ④ 산화방지제 - 식품의 산화를 지연시키는 물질
 - ⑤ 안정제 -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는 물질
 - ⑥ 증점제 - 식품의 용액, 유화액 및 현탁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물질
 - ⑦ 감미료 - 단맛을 내는 인공 물질
 - ⑧ 흡윤제 - 식품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물질
 - ⑨ 산미료 - 산성 맛을 식품에 포함시키거나 강화하는 물질
 - ⑩ 식품살충제 - 식품의 흡습성을 감소시키는 물질
 - ⑪ Foaming and Anti-Foaming - 식품 음식의 표면장력을 변형시키는 물질
- 제품의 PIQ(Product Identity and Quality Standard, 제품 정의와 품질 표준) 및 추가 법규정에 따라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를 제한하는 등 제약을 두고 있다. 향미(Flavor)의 사용과 표시(라벨링)를 규정하는 특정 법률 조항도 있다.
- 향미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이든 인공적이든 향미 정보는 포장의 전면패널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용어는 향미의 목적이 맛의 강화냐, 아니면 맛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수출입 제품의 경우 국립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에 식품첨가물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품목별 식품첨가물 최대 허용 한계는 다음과 같이 식품첨가물별·품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되고 있기에 품목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 ANVISA는 분유, 과일·채소, 주류, 음료, 시리얼, 유제품, 제빵·비스킷·캔디·초콜리 등에 대한 첨가물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품목별 식품첨가물 최대 허용 한계(예시)

식품첨가물	품목	최대허용한계
안식향산	통조림 야채	0.10%
산화방지제	맥주	0.20%
	고기	0.20%
	밀가루	0.20%
	마가린	0.20%
	오일·지방	0.03%
	음료	0.03%

출처: ANVISA

- ANVISA는 식품첨가물 규제정보를 통해 식품분류에 따라 개별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필요성 및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다.
 - 식품첨가물과 해당 첨가물이 함유될 제품과의 관계
 - 식품첨가물의 기능
 - 적절한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자료
 - 식품 섭취 시 미칠 잠재적 영향
 - 타 국가에서의 규제 상황
- 브라질에 수출하기 전, 최종 제품이 현지의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성분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식품첨가물과 관련해서는 식품 분류에 따라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각 상품에 해당하는 법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법령들은 ANVIS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 유해물질 규정

- 브라질 ANVISA는 2009년 4월 15일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64종류의 국내 채소, 과일 샘플 가운데 피망에 금지된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은(64%)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조사에서는 토마토에 잔류 농약이 가장 많았는데(44.27%), 2009년 조사에서는 18.27%로 줄어 과일, 채소, 곡물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ANVISA 통계에 따르면, 피망의 오염도가 91.8%로 가장 높았으며, 딸기(63.4%), 오이(57.4%), 상추(54.2%), 당근(49.6%), 파인애플(32.8%), 사탕무(32.6%), 콜라드(31.9%), 파파야(30.4%)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잔류 농약·비료 오염도

구분	품목명	오염도
1	피망	91.8%
2	딸기	63.4%
3	오이	57.4%
4	상추	54.2%
5	당근	49.6%
6	파인애플	32.8%
7	사탕무	32.6%
8	콜라드	31.9%
9	파파야	30.4%
10	토마토	16.3%
11	오렌지	12.2%
12	사과	8.9%
13	쌀	7.4%
14	콩	6.5%
15	푸른 양배추	6.3%
16	망고	4%
17	양파	3.1%
18	감자	0%

출처: ANVISA

- 2012년에는 수출용 오렌지 주스에서 곰팡이 제거제로 사용되는 농약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으며, 미국 FDA에 따르면 검출 수준은 0.035ppm이었다.
-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일부 식품에 대하여 아플라톡신 최대 잔류 허용량과 시료 채취 절차 개정을 요구하였다.
- 2015년 품목별 유해물질 최대잔류수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은 2015년 이전에는 설정되지 않았던 MRL 기준이 설정되거나 수치가 조정되었다.
 - 서양 호박의 디페노코나졸(살충제)의 MRL은 0.06mg/kg에서 0.02mg/kg로 강화되었으며, 상추 역시 페나마돈(살균제) MRL이 1mg/kg로 강화되었다.
 - 파파야의 사이페메트린(살충제)의 MRL은 0.02mg/kg로, 콩의 보스칼다 MRL도 0.01mg/kg로 새로 설정되었으며, 쌀, 바나나, 감자, 양파도 새로 설정되었다.
 - 카사바의 피라클로스트로빈의 MRLmg/kg은 0.01mg/kg에서 0.02mg/kg로 완화되었다.
 - 토마토의 경우 과거에 0.5mg/kg로 설정되었던 아세테이트 MRL이 0mg/kg으로 강화되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품목별 유해물질 MRL(2015)

품목	유해물질	표준	발행일	이전 MRL (mg/kg)	MRL (mg/kg) (2015)	2015 모니터링을 위해 MRL 채택
서양 호박	아목시실린 (Azoxystrobin)	ANVISA 결의안 3751/2014	2014/9/23	-	0.5	0.5
서양 호박	부프로펜진 (Bupropfenzine)	ANVISA 결의안 3448/2014	2014/9/9	-	0.3	0.3
서양 호박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ANVISA 결의안 3750/2014	2014/9/23	0.06	0.02	0.02
서양 호박	디메토모르포 (Dimetomorph)	ANVISA 결의안 3749/2014	2014/9/23	-	0.1	0.1
서양 호박	플루트리아포 (Flutriafo)	ANVISA 결의 4703/2014	2014/12/8	-	0.1	0.1
서양 호박	인독사카브 (Indoxacarb)	ANVISA 결의안 3446/2014	2014/9/9	-	0.05	0.05
서양 호박	람다사이할로스린 (Lambda-cyhalothrin)	ANVISA 결의안 4969/2014	2015/1/2	-	0.015	0.015
서양 호박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ANVISA 결의안 345/2015	2015/2/5	-	2	2
서양 호박	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m)	ANVISA 결의안 4972/2014	2015/1/2	-	0.01	0.01
상추	베타사이퍼메트린 (Beta-cypermethrin)	ANVISA 결의안 2340/2015	2015/8/19	-	0.02	0.02
상추	디티오카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Metiram))	ANVISA 결의안 3754/2014	2014/9/23	-	3	3
상추	페나미돈 (Fenamidone)	ANVISA 결의 2186/2015	2015/8/8	2	1	1
상추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ANVISA 결의안 345/2015	2015/2/5	-	40	40
상추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ANVISA 결의안 2179/2015	2015/8/8	-	0.01	0.01
쌀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ANVISA 결의안 2046/2014	2014/5/30	-	0.02	0.02
바나나	보스칼리다 (Boscalida)	ANVISA 결의 1623/2015	2015/1/1	-	0.1	0.1
바나나	크레속심메틸 (Kresoxim-methyl)	ANVISA 결의안 1622/2015	2015/1/1	-	0.01	0.01
감자	디아판티움 (Diaphantium)	ANVISA 결의 3173/2014	2014/8/21	-	0.01	0.01
양파	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ANVISA 결의 4699/2014	2014/12/8	-	0.1	0.1
양파	크레속심메틸 (Kresoxim-methyl)	ANVISA 결의안 4971/2014	2015/1/2	-	0.01	0.01
양파	플루트리아포 (Flutriafo)	ANVISA 결의 4703/2014	2014/8/12	-	0.1	0.1

품목	유해물질	표준	발행일	이전 MRL (mg/kg)	MRL (mg/kg) (2015)	2015 모니터링을 위해 MRL 채택
양파	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m)	ANVISA 결의안 4972/2014	2015/1/2	-	0.03	0.03
콩	보스칼리다 (Boscalida)	ANVISA 결의안 3370/2014	2014/9/1	-	0.01	0.01
파파야	베타사이퍼메트린 (Beta-cypermethrin)	ANVISA 결의안 2340/2015	2015/8/19	-	0.02	0.02
파파야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ANVISA 결의안 345/2015	2015/2/5	-	2	2
파파야	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m)	ANVISA 결의 2187/2015	2015/8/8	-	0.2	0.2
카사바	에폭시코나졸 (Epoconazole)	ANVISA 결의안 1432/2015	2015/5/15	0.05	0.01	0.01
카사바	플루트리아포 (Flutriafol)	ANVISA 결의 4703/2014	2014/12/8	-	0.1	0.1
카사바	람다사이할로스린 (Lambda-cyhalothrin)	ANVISA 결의안 4969/2014	2015/1/2	0.7	0.05	0.05
카사바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ANVISA 결의안 4978/2014	2015/1/2	0.1	0.02	0.02
토마토	아세테이트 (Acephate)	10/02/13의 RDC ANVISA n ^o 45	2014/10/4	0.5	0	0

주: 각 품목의 최종 모니터링시 채택된 것으로 MRL(mg/kg)이 업데이트 되었음
출처: ANVISA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Part V

|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

01. 상표권 및 특허권 개요

02.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방법

03. 분쟁사례



Brazil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01 | 상표권 및 특허권 개요

가. 상표권

□ 산업재산권청 역할

- 상표출원은 브라질 산업재산권청(BPTO, Brazilian Trademark Office)에서 접수한다. 이때 현지 대리인의 위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BPTO는 출원서 구비요건 및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다.
- 상표출원은 제품표장, 증명표장, 단체표장, 광고 문구 또는 도형 등이 해당되며, 표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상표와 구별을 나타내는 상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규성, 원산지와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진실성, 공공질서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합법성에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상표권 출원 현황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연간 브라질에서 문을 여는 100만 개의 신생 기업 중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 그러나 출원건수는 2013년 기준 16여만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상표 출원 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표출원수	96,317	107,744	125,838	115,570	129,792	152,932	150,107	163,587

출처: 브라질산업재산권청, NAVI(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브라질편).

나. 특허권

□ 특허청 역할

- 특허청(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telectual)은 기술이전에 관한 등록, 감시뿐만 아니라, 기술이 전에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
 - 특허 신청, TRADEMARK 등록, 양도, 양허사항 감독
 - 특허의 이전 조건 개선
 -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과 관련, 정부 보조
- 로열티 결정, 감세 기준, 해외 송금 등 외국 특허양허인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다음의 재량권이 있다.
 - 외국 기술 도입 여부 결정
 - 기술도입계약 조건 심사, 결정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도입계약의 등록 거부
 - 정부 정책, 법률에 위배되는 계약의 수정을 결정
- 특허와상표의 등록 및 인정을 실시하며, 특히 외국 기술이전시 정부 정책 및 경제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술이전 승인을 결정한다. 기술이전, 특허 및 상표권 허용 시 관계 정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는데, 국세청과는 소득세 중 로열티와 기타 경비의 감면 문제를, 중앙은행과는 로열티와 경비의 송금 문제를 협의한다.

□ 특허권 출원 현황

-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 2015년 기준, 브라질에서 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년이며, 정보통신 분야 특허 취득에는 14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사위원 부족인데, 현재 INPI 특허 전문 심사원 1명당 약 1,000여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10여 년간 약 2 배로 악화되었다.

* 2003년: 6년 → 2008년: 9년 → 2015년: 11년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 2016년 기준 INPI에 접수된 특허 신청 건수는 31,020건인데 이 중 미국(개인 및 법인)이 신청한 특허는 9,129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 2위는 브라질(8,082건), 3위는 독일(2,225건), 4위는 일본(1,832건), 5위는 프랑스(1,465건) 등이며, 13위인 한국은 2016년 총 290건의 특허를 INPI에 신청하였다.
 - INPI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 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 등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려는 업체는 많으나 특허청의 전문인력 부족, 관료주의적 행정 등으로 신청자 대비 발급 건수가 매우 낮은 편이다.
 - INPI가 발급한 특허 건수는 2010년 3,617건, 2011년 3,801건, 2012년 3,137건, 2013년 3,326건, 2014년 3,123건, 2015년 3,895건, 2016년 4,771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02 |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방법

가. 상표권

- 브라질의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은 INPI에서 이루어진다.
 - 전문가의 도움 없이 INPI 사이트를 통해 출원할 수 있는데, 소규모 기업의 상표출원의 경우 약 1,000BRL 이 소요된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10~15년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한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의견이다.
- 상표권 출원을 위한 선결 조건은 INPI 사이트(www.inpi.gov.br)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확인 절차는 간편하나 홈페이지가 포르투갈어이고 영문 버전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INPI 사이트를 통해 상표명을 조회하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 ① INPI 사이트에 접속해 좌측 메인 중 'Marca' - 'Buscar'를 선택
 - ② 화면 중앙부의 'Ferramenta de busca online'을 선택
 - ③ 화면 상단의 메뉴 중 'Marca'를 선택한 후 빈칸에 상호명을 조회



- 브라질 상표권 등록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상표권 출원 시 필요서류

- ① 출원서 양식 3부(이름, 주소, 업무, 상표 및 지정 상품, 서비스업 기재)
- ② 위임장(대표자 서명 필)
 - *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필요
- ③ 상표견본(도형 또는 결합상표의 경우 15부, 문자상표는 견본 불요)
 - * 단, 문자상표가 대문자로 된 경우에는 결합상표로 취급
- ④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출원서 인증사본
 - * 인증사본은 브라질 출원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 우선권 주장 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요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상표권 출원 신청서 양식

The image shows a sample of the INPI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trademark application form. It is titled 'FOLHA DE PETIÇÃO - MARCA'. The form is divided into six main sections, each with a green circular icon and a number:

- 1 IDENTIFICAÇÃO DO PEDIDO / REGISTRO**: Includes checkboxes for 'Pedido' and 'Registro', and fields for 'Nº', 'Data' (Dia, Mês, Ano).
- 2 DADOS DO DOCUMENTO DE ARRECADACÃO**: Contains two rows for 'GUIDA 1' and 'GUIDA 2', each with fields for 'Número do documento (campo noasso número)', 'Código do serviço', 'Valor pago', and 'Data pago'.
- 3 DADOS DO REQUERENTE**: Includes fields for 'CPF / CNPJ / Nº INPI', 'Nome ou Razão Social', 'Endereço', 'Bairro', 'Município', 'CEP', 'Telefone', 'FAX', 'UF', and 'C. País'.
- 4 OBJETO / DOCUMENTO ANEXADOS**: A large section with two columns of checkboxes. The left column lists 'OBJETO' (e.g., 'Via de Certificado', 'Atenção ao Endosso ou de Selo', etc.). The right column lists 'DOCUMENTOS ANEXADOS' (e.g., 'Guia de Formulário', 'Procuração', etc.).
- 5 ESPECIFICAÇÃO DOS PRODUTOS / SERVIÇOS**: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specifying products or services.
- 6 DECLARAÇÃO DE ATIVIDADE**: Includes a checkbox for 'Empresa controladora conforme o artigo 128 § 1º da Lei Nº 6.279/79' and 'Sim'/'Não' options.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section for 'DADOS DO PROCURADOR' (Attorney's Data) with fields for 'Registro na Junta ou Cartório', 'Matrícula API', 'UF', 'Nº de inscrição na OAB', and 'Nome'. Below this is a declaration: 'DECLARO, SOB AS PENAS DA LEI, SEREM VERDADEIRAS AS INFORMAÇÕES PRESTADAS'. There is also a signature line and a date field. At the very bottom, it says 'USO EXCLUSIVO DO INPI'.

- ① 출원/등록 표시
- ② 서류 번호, 납부액
- ③ 신청자 정보(이름,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국적 등)
- ④ 첨부된 서류(체크 방식)
- ⑤ 상품/서비스업의 표시
- ⑥ 시행의 선언

- 출원서 제출 후 보정 통지, 또는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을 경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출원은 포기로 간주한다.
- 이의신청은 상표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이의신청인 또는 출원인은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나. 특허권

- 정규출원으로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출원이 있다. 통상의 특허출원은 출원수수료와 출원서류를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하고 방식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출원일을 인정받게 된다.

1) 국내 출원

- 특허출원으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않고 최초로 브라질에서 출원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브라질에서의 후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은 선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 인정되며, 추가된 새로운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그 기초 출원은 종국적으로 취하 간주되고, 분할 출원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없다.

2) 국제특허조약 PCT에 의한 국제 특허출원 절차

- PCT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 지정국 출원을 하는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한 다음 PCT 국제 특허 절차를 따라 지정국내 특허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다.

① 수리관청인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내특허 출원 후 우선권 주장 시 >> PCT 특허출원 절차 12개월 이내에 한국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한다.

② 출원서 작성 시

-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 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은 필요 없다.

③ 국제 조사(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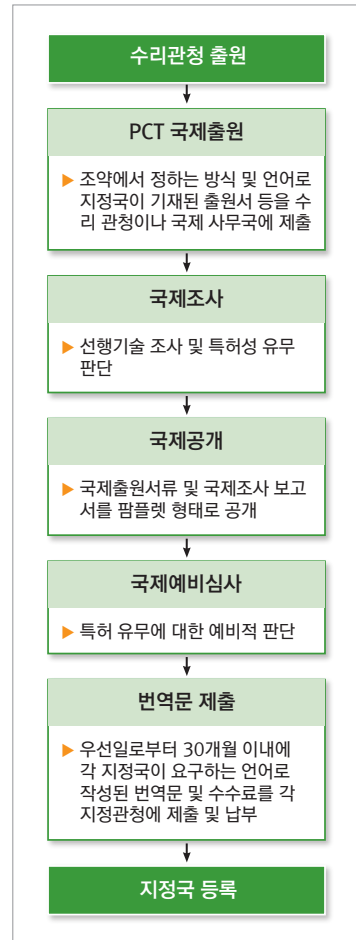
- 국제조사기관 ISA는 출원된 발명의 선행 기술 존재 여부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는 국제조사를 실행한다. 발간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출원인 및 WIPO에 배부된다.

④ 국제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 출원 서류가 팸플릿 형태로 국제사무국 공보에 게재된다.

⑤ 국제 예비심사(선택)

- 국제 예비심사기관 IPEA는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실시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WIPO에 송부한다.
- 특허 유무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통해 지정국 내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특허출원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출처 : 특허청(www.kipo.go.kr)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⑥ 번역문 제출

- 반드시 포르투갈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⑦ 지정국 등록

○ 이후 브라질을 지정국으로 등록하여 진행한다.

○ 특허권 등록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6가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에는 출원인(이해관계인), 발명의 명칭, 대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을 기재한다. 브라질의 경우 하나의 양식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에 표시를 한 후 별지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한다. 그 외의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또한 PCT 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시에는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및 우선권에 대한 정보만을 기재한다. 이 경우 수수료 납부증명서, 위임장, 우선권 서류,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 등은 별지에 첨부한다.

» 특허권 출원 시 필요서류

① 출원서 ② 명세서 ③ 청구항 ④ 도면(필요시)	⑤ 요약서 ⑥ 출원수수료의 납부증명서
--------------------------------------	-------------------------

» 특허권 출원신청서 양식

Protocolo _____ Espaço reservado para o signatário

(Rio de Janeiro de INPI)

PETIÇÃO, RELACIONADA COM PEDIDO, PATENTE OU CERTIFICADO DE ADIÇÃO:

1 Ao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1. Interessado:
 1.1 Nome: A.F.S. IND. COM. REPRESENT. E PROMOÇÕES LTDA
 1.2 CNPJ/CPF (se houver):
 1.3 Endereço completo: BRASIL
 1.4 Telefone: continua em folha anexa
 1.5 FAX:

2. Título da Invenção, do Modelo de Utilidade ou do Certificado de Adição:
 continua em folha anexa

3. Natureza:
 3.1 Invenção 3.1.1 Certificado de Adição 3.2 Modelo de Utilidade

4. Referência:
 4.1 Pedido 4.2 Patente 4.3 Nº: 033333333333 4.4 Data: / /

5. Procurador (74):
 5.1 Nome e CPF/CNPJ: Hugo Silva, Rosa & Maldonado-Prop. Int
 5.2 Endereço completo: Rua Dom Gerardo 63 - 701/703 Rio de Janeiro RJ
 5.3 Telefone: (21)2516-4633 / 2253-9601
 5.4 FAX: (21)2516-4041 / 2516-0569

Formulário 1.02 - Petição ou Requerimento, relacionado com pedido, patente ou certificado de adição (folha 1/2)

6. Apresenta/Requer:
 Assinale o(s) item(s) que se aplica(m) ao seu caso:
 (Deverá ser indicado o nº total de somente uma das vias de cada documento)

O que se requer/apresenta	Folhas
6.1 Modificações no Relatório Descritivo	
6.2 Modificações nas Reivindicações	
6.3 Modificações nos Desenhos	
6.4 Modificações no Resumo	
6.5 Caducidade da Patente/Certificado de Adição	
6.6 Contestação de Caducidade/Nulidade	
6.7 Cópia oficial do pedido depositado	
6.8 Cumprimento ou Contestação de Exig. RPI _____, de _____	
6.9 Desarquivamento, arquivado na RPI _____, de _____	
6.10 Documentos de Prioridade	
6.11 Exame do Pedido com reivindicações	
6.12 Expedição de Carta Patente / Certificado de Adição	
6.13 Guias de Recolhimento (uma para cada serviço)	
6.14 Manifestação s/ Parecer RPI _____, de _____	
6.15 Nulidade da Patente / Certificado de Adição	
6.16 Procuração	
6.17 Publicação Antecipada	
6.18 Recurso contra o Indeferimento	
6.19 Recurso, (outros)	
6.20 Renúncia da Patente	
6.21 Restauração de pedido / patente	
6.22 Retirada do Pedido	
6.23 Subsídios ao Exame Técnico	
6.24 Oferta de Licença	
<input checked="" type="checkbox"/> 6.25 Outros(especificar): REPRESENTAÇÃO DE CESSÃO E RESPECTIVA TRANSCRIÇÃO - R.F.S.	
6.26 Total de folhas anexadas	0

7. Declaro, sob penas da Lei, que todas as informações acima prestadas são completas e verdadeiras
 Rio de Janeiro 18/09/2007 _____

1 이해관계인(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2 발명의 명칭

3 종류(발명, 추가 증명서, 실용실안)

4 참조(출원, 특허)

5 대리인(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6 질문사항(명세서의 수정, 청구항의 수정, 도면의 수정, 요약서의 수정, 특허/추가증명서의 보완, 보완에 대한 이익, 출원된 서류에 대한 공적 사본, 보완에 대한 용낙서/이의서, 기록서/기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회복, 우선권 서류, 청구항에 대한 심사, 특허/추가 증명서의 발행, 요금납부 서류, 견해서에 대한 의견서, 특허/추가 증명서의 무효, 위임장, 조기 공개, 거절에 대한 항고, 항고, 특허 포기, 출원/특허의 회복, 출원의 포기, 심사청구료, 라이선스의 제공 등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삼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03 | 분쟁사례 ¹¹⁾

1) 분쟁사례 개요

- 특허권을 두고 벌어지는 기업 간의 다툼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아 복제품이 쉽게 유통되며, 특허 취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브라질은 사업환경이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11) KORTRA 자료 재구성

- INPI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 시스템을 2012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이 120일 내에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허 등록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특허 취득 환경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INPI에 상표출원 이후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개월이다. 출원 건수는 세계 평균 미만이며, 구태의연한 등록 절차 및 고비용으로 국내외 기업의 불편을 사고 있다. 특허권 취득의 경우 무려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 INPI는 신규 특허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불편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상표권 등록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차후 상표를 복제당하거나 타 기업이 선점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안이 없다.
 - 또한 서로 상표권을 주장하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상표권 불법복제 사례

- 2013년 브라질에 입점한 미국 햄버거 브랜드 'Johnny Rockets'는 상표 불법복제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다.
 - 브라질 Johnny Rockets 프랜차이즈 점주인 Antônio Augusto de Souza는 2003년 4월 미국 본사와의 계약 및 개점 준비를 하였으나, INPI에 'Rocket'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였다.
 - 브라질에서는 이미 'Johnny Rockets' 브랜드의 타이포그래피, 로고, 색상을 복제한 'Rockets' 상호명의 햄버거 판매업체가 영업 중이었기 때문이다.
- 이후 Antônio는 INPI의 결의안을 6년 동안 기다렸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Johnny Rockets' 미국 본사에서 브라질 'Rock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결국 'Rocket'은 패소하고 폐업했지만, 'Johnny Rockets'는 소송으로 인해 2004~2005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 오리지널 Johnny Rockets 로고와 Rockets의 불법복제 로고



| 부록 |

01. 관련 기관 및 협회

02. 박람회 정보

03.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04. 참고문헌 및 사이트



01 | 관련 기관 및 협회

1) 국내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업관련 정책 업무
외교부	www.mofa.go.kr	외교관련 정책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산업, 무역 관련 정책 업무
통계청	www.kostat.go.kr	국가통계 업무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 세율 정보 표시 및 업무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농식품 유통 및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 업무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동식물의 검역 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개량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무역 관련 업무 및 정보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농업 관련 각종 연구

2) 브라질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브라질 정부 Brasil Government	www.brasil.gov.br	정부 홈페이지, 브라질 각종 정보 제공
무역산업외무부 Ministerio de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www.mdic.gov.br	무역 및 산업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농축식품부 Ministerio da Agricultura	www.agricultura.gov.br	국가 농업, 식품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연방재정부 Ministerio da Fazenda - Receita Federal	www.idg.receita.fazenda.gov.br	국가 경제, 재정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외교부 Ministerio das Relacoes Exteriores	www.itamaraty.gov.br	국가 외교 업무 담당, 정보 제공
브라질 통계, 지리협회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istica	www.ibge.gov.br	통계 정보 제공
산업통상서비스부 Ministerio da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e Serviços	www.mdic.gov.br	대외무역 관련 정보 제공
국가위생감시국 Agencia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	portal.anvisa.gov.br	건강 및 위생 관련 제품 대상 생산 및 유통 과정, 작업환경, 기술 등 분야에서 위법 여부감시, 제품 수입/수출 시 위생·검역
산업재산권청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a Industrial(INPI)	www.inpi.gov.br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 소프트웨어, 회로배치 등을 관리
브라질 중앙은행 Banco Central do Brasil	www.bcb.gov.br	국가 화폐, 재정, 환율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브라질 전문식품협회 ABBA Brazilian Association of Food and Beverage	www.specialtyfood.com	독특한 음식 관련 정보 제공
브라질 슈퍼마켓협회 Associação Brasileira de Supermercado: Abras(ABRAS)	www.abrasnet.com.br	브라질 내 슈퍼마켓의 판매정보 제공
브라질 도매유통협회 (ABAD)	www.abad.com.br	브라질 내 도매유통 관련 정보 제공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3) 범국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UN 무역통계자료 UN Comtrade Database	www.comtrade.un.org	UN(국제연합)이 제공하는 무역통계 정보 사이트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www.intracen.org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는 무역개발솔루션 제공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ww.fao.org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세계무역 확대 촉진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국제무역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및 교역/통상에 관한 연구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ww.worldbank.org	국제 무역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기술 원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www.ifoam.bio	유기농업 운동을 선도·통합·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유기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용 중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ww.wipo.int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추진하는 기구

02 | 박람회 정보

□ 브라질 상파울루 식품 박람회(APAS show)

	개최기간	2017.05(4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식품, 음료
	홈페이지	www.apasshow.com.br

□ 슈퍼 리우 푸드 엑스포(Super Rio Expofood)

	개최기간	2017.03(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산업분야	유통, 요식업
	홈페이지	www.superio.com.br

□ 상파울루 국제 농업기계 박람회(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in Action Trade Show)

	개최기간	2017.05(5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농업, 임업, 축산, 기계류
	홈페이지	www.agrishow.com.br

□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 와인 박람회(International Wine Fair)

	개최기간	2017.06(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식품, 와인, 주류
	홈페이지	www.expovinis.com.br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 2017 브라질 국제 커피 박람회(Trade Show for the Coffee; FISPAL CAFE 2017)

	개최기간	2017.06(4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식품, 음료, 기계류
	홈페이지	www.btsinforma.com.br

□ 2017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 맥주 산업 박람회(2017 International Exhibition of Beer Technology)

	개최기간	2017.07(3일간)
	개최주기	격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식품, 음료, 기계류, 포장산업
	홈페이지	www.fagga.com.br

□ 2017 브라질 국제 소고기산업 박람회(2017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the Meat Industry)

	개최기간	2017.08(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농업, 임업, 축산, 기계류
	홈페이지	www.tecnocarne.com.br

□ 2017 남미 식품 재료 박람회(2017 Food Ingredients South America)

	개최기간	2017.08(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상파울루
	산업분야	식품, 음료, 농업, 임업, 축산
	홈페이지	www.fi-events.com.br

03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 조사 목적

- 브라질 식품시장 현황 파악과 주요 수출품목, 현지 식품 수출입 제도, 상표권 제도 등의 현지 정보 수집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향후 수출 및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

□ 조사 내용

- 농식품 시장 현황, 식품 트렌드, 유통 및 소비동향
-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파악
- 식품 수입 절차, 통관 · 검역 · 수입 식품 위생제도, 수출입 동향
- 식품과 관련된 상표권, 지적 재산권, 특허

□ 조사 대상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NO	구분	회사명	소개
1	수입	OG Company	1989년 설립된 한국식품 수입업체로 오투기 슈퍼마켓을 운영
2		하나로	1994년 설립된 한국식품 수입업체(도매 전문)
3		Zendai	2000년 설립된 일본계 수입업체로 주로 일본식품을 취급
4	유통	Pão de Açúcar(GAP)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Pão de Açúcar를 포함하여 Extra Hyper 등 다양한 형태의 체인을 운영
5		Hirota Food	1972년 설립된 아시아(일본계) 수입업체로 식품 전반 제품을 취급
6		Marukai	1997년 설립된 아시아식품(일본계) 유통업체로 주로 일본식품을 취급
7		해피마트	한국식품 유통업체
8		롯데마트	한국식품 유통업체
9	정부기관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04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참고문헌

- 농수산식품창조적수출전략 중남미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 브라질 경제 동향, 금융 동향 센터, 2016
- 브라질 수출입통관제도/유의사항, 관세청,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알기쉬운 브라질 의료장비 의약품 화장품 인증, KOTRA, 2016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브라질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7
- 2017년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 Brazil Agribusiness Report, BMI Research, 2017
- Brazil Agribusiness Quarterly, Rabobank, 2016
- Brazil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6
- Brazil Food&Drink Report, BMI Research, 2017
- Brazil Retail Report, BMI Research, 2017
- Brics Insi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 EM Insi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2월호
- EM Insi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3월호
- Food system transformations: Brazil, IFPRI, 2015
- Fresh Food Brazil, Euromonitor, 2016
- GAIN Report, USDA, 2016
- Global Retail Expansion at a Crossroads, ATKearney, 2016
- Grocery Retailers in Brazil, Euromonitor, 2017
- Homeshopping in India, Euromonitor, 2016
- Income and Expenditure: Brazil, Euromonitor, 2016
- Internet Retailing In Brazil, Euromonitor, 2016
- Macroeconomic Outlook,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2017
- New Strategy Briefing: Brazil's Consumer Spending in Times of Economic Recession, Euromonitor, 2017
- Organic products certification Step by step, IBD, 2016
- Packaged Food In Brazil, Euromonitor, 2017
- The meaning of the organic certification label for the consumer : a cluster analysis, REGE, 2016
- The retail and consumer industry in Brazil – Navigating the downtown, pwc, 2015

나. 참고사이트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관세법령정보포털3.0(unipass.customs.go.kr)
- 브라질보건부(Ministério da Saúde)(www.saude.gov.br)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우리은행 외환센터(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
- 주간무역(www.weeklytrade.co.kr)
- 현대글로벌비스(www.glovis.net)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agr.gc.ca/eng/home)
- APEX-Brasil(www.apexbrasil.com.br)
- BrazilGovNews(www.brazilgovnews.gov.br)
- Easy Brazil Investing(www.easybrazilinvesting.com)
- eldis(www.eldis.org)
- Euromonitor International(www.euromonitor.com)
- FTA 강국, Korea(www.ftahub.go.kr)
- HYC(Harvey Yaffee Companies) Logistics(www.hyclogistics.com)
- IBD(ibd.com.br)
-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www.export.gov)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kotra.or.kr/KBC/saopaulo/KTMIIUI010M.html)
- Maps of World(www.mapsofworld.com)
- RECEITA FEDERAL(receita.fazenda.gov.br)
- Reuters(www.reuters.com)
- The Atlantic(www.theatlantic.com)
- The Straits Times(www.straitstimes.com)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ww.wipo.int)
- World Cancer Research Fund International(www.wcrf.org)
- World Food Programme(www.wfp.org)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Part III
수입통관
제도Part IV
식품 위생
제도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부록

Brazil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브라질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발행일 2017.05

발행처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8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특성을 모두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브라질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국가 일반 현황

농식품 시장 동향

수입 통관 제도

식품 위생 제도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